한국문학탐방 Ⅱ
발표 자료집

2019
(4월 3일 ~ 4월 5일)

전라남도 일대 및 경상남도 일부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목차

Ⅰ. 기본 사항

1.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 i
2. 준비물 ····· ii
3. 버스 좌석 배정 ····· iii
4. 숙소 방 배정 ····· iv
5. 한국문학탐방 일정 ····· v
6. 한국문학탐방 지도 ····· vi
7. 주소 및 연락처 ····· vii
8. 보고서 양식 ····· viii
9. 발표 내용 ····· ix

Ⅱ. 발표 자료

1. 정철

1.1 [이동은] 정철이 노래한 『사미인곡』과 『성산별곡』 ····· 1
1.2 [강규민] 조선가사의 대표작 『관동별곡』 ····· 3
1.3 [박은선] 송강 정철의 삶과 문학 ····· 5
1.4 [임민지] 물처럼 맑고 소나무처럼 우직한 ····· 6
1.5 [이상기] 송강 정철이 노래한 아름다운 자연, 그 곳 ····· 7

2. 송순

2.1 [김혜빈] 『면앙정가』 작품해석 및 작품세계 ····· 8
2.2 [김규찬] 강호가도의 확립 『면앙정가』 ····· 11
2.3 [하민아] 유연하고 개방적인 가사문학 ····· 12
2.4 [정병규] 송순의 흔적을 따라서 ····· 13
2.5 [김승현] 송순의 마음이 담긴 정자 '면앙정' ····· 14

3. 조정래

3.1 [정지원] 조정래, 비극의 현장을 이야기하다 ····· 15
3.2 [안수재] 지역 특성과 전형적 인물군을 조명한 『태백산맥』 ····· 17
3.3 [조성빈] 조정래, 그는 누구인가 ····· 19
3.4 [방은진] 눈에 담아보는 소설 『태백산맥』 ····· 20

4. 김영랑
4.1 [김서연] 항일민족 시인 김영랑 ····· 24
4.2 [정경원] 김영랑 시인이 살아온 시간 ····· 26
5. 정약용
5.1 [김병규] 정약용의 시선을 담은 책 ····· 27
5.2 [이예진] 정약용이 말하는 목민관의 지침과 판결방법 ····· 29
5.3 [석영준] 정약용의 학문에 대한 열정 ····· 31
5.4 [최예원] 정약용의 특별한 유배지, '다산초당' ····· 33
6. 이청준
6.1 [박유진] 이청준의 한(恨)의 문학 ····· 35
6.2 [이소현] 왜 글을 쓰는가, 이청준의 삶과 세계 ····· 37
7. 김동리
7.1 [김 산] 역마와 화개 ····· 39
7.2 [박준현] 김동리가 걸어온 길 ····· 41
8. 박경리
8.1 [민초이] 역사를 넘어 한국인의 정신까지 담아낸 『토지』 ····· 43
8.2 [박세현] 『토지』의 강인한 여성들 ····· 44
8.3 [임무혁] 작품과 수상으로 알아본 박경리 ····· 45
8.4 [조휘현] 한반도의 발자취 토지를 따라서 ····· 46
9. 김승옥
9.1 [이연호] 무진, 그리고 순천 ····· 47
9.2 [김태영] 김승옥의 풍부한 감수성 ····· 49
9.3 [이혜미] 김승옥의 소설속에서 ····· 50

Ⅲ. 유적지 소개
1. 소쇄원 ····· 53
2. 백련사 ····· 54

Ⅰ. 기본 사항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담당교수 : 신서인 선생님
인솔교수 : 김명준 선생님, 이병기 선생님, 이승은 선생님

학생회장 : 박은선 (010-6488-5234)
부학생회장 : 하민아 (010-9733-8945)
답사부장 : 이소정 (010-5365-9153)
조　　교 : 정현아 (010-8772-8465)

	조장	조원			
1조	박은선	강규민	이동은	임민지	이상기
2조	하민아	김규찬	김승현	김혜빈	정병규
3조	방은진	안수재	정지원	조성빈	이정수*
4조	정경원	박유진	김서연	이소현	우정민*
5조	최예원	석영준	김병규	이예진	정해성*
6조	김태영	김산	박준현	이혜미	이연호
7조	임무혁	박세현	조휘현	민초이	이혜원*

* : 객원

준비물

* 공동 준비물: 상비약, 카메라, 휴대용 마이크, 무전기 등
* 개인 준비물: 자료집, 필기도구, 신분증, 편한 복장, 운동화, 세면도구, 우산 등

주의사항

1. 탐방 중 주의사항
   (1) 인솔자(학생회장, 부회장, 답사부장, 조교, 교수)의 지시를 따른다.
   (2) 학교 및 학과의 일원으로서 명예롭게 행동한다.
   (3) 인원 점검 시간을 엄수한다.
   (4) 명찰을 항상 패용한다.
   (5) 발표는 큰 목소리로 또렷하게 한다.
   (6)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한다.
   (7) 자유 관람 시에도 안전을 위하여 조별로 이동한다.
   (8) 탐방 도중 개인행동 및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9) 도로 횡단 시 차량에 유의한다.
   (10)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11) 신체에 이상이 있을 시 인솔자에게 바로 알린다.
   (12)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즐겁게 생활한다.

2. 차량 내 주의사항
   (1)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2) 차량번호를 숙지해둔다.
   (3) 탐방 차량임을 확인하고 탑승한다.
   (4) 승차하기 전 신발을 털어 차내 먼지를 최소화한다.
   (5) 하차할 때 쓰레기를 모아서 정리한다.
   (6) 하차할 때 기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3. 숙소 내 주의사항
   (1)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동한다.
   (2) 개인 위생에 신경 쓴다.
   (3)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음주는 삼간다.
   (4) 인솔자의 허락 없이 숙소를 이탈하지 않는다.
   (5)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둔다.

버스 좌석 배정

기사님	
답사부장 이소정	조교 정현아
이승은 선생님	
정경원	임무혁
박세현	조휘현
민초이	이연호
이예진	이혜미
정지원	안수재
조성빈	강규민
김서연	이동은
임민지	이상기

계단	
신서인 선생님	
김명준 선생님	
이병기 선생님	
이소현	박유진
박준현	김　산
석영준	김병규
방은진	최예원
김승현	김혜빈
김규찬	정병규
박은선	하민아

이혜원	우정민	김태영	정해성	이정수

숙소 방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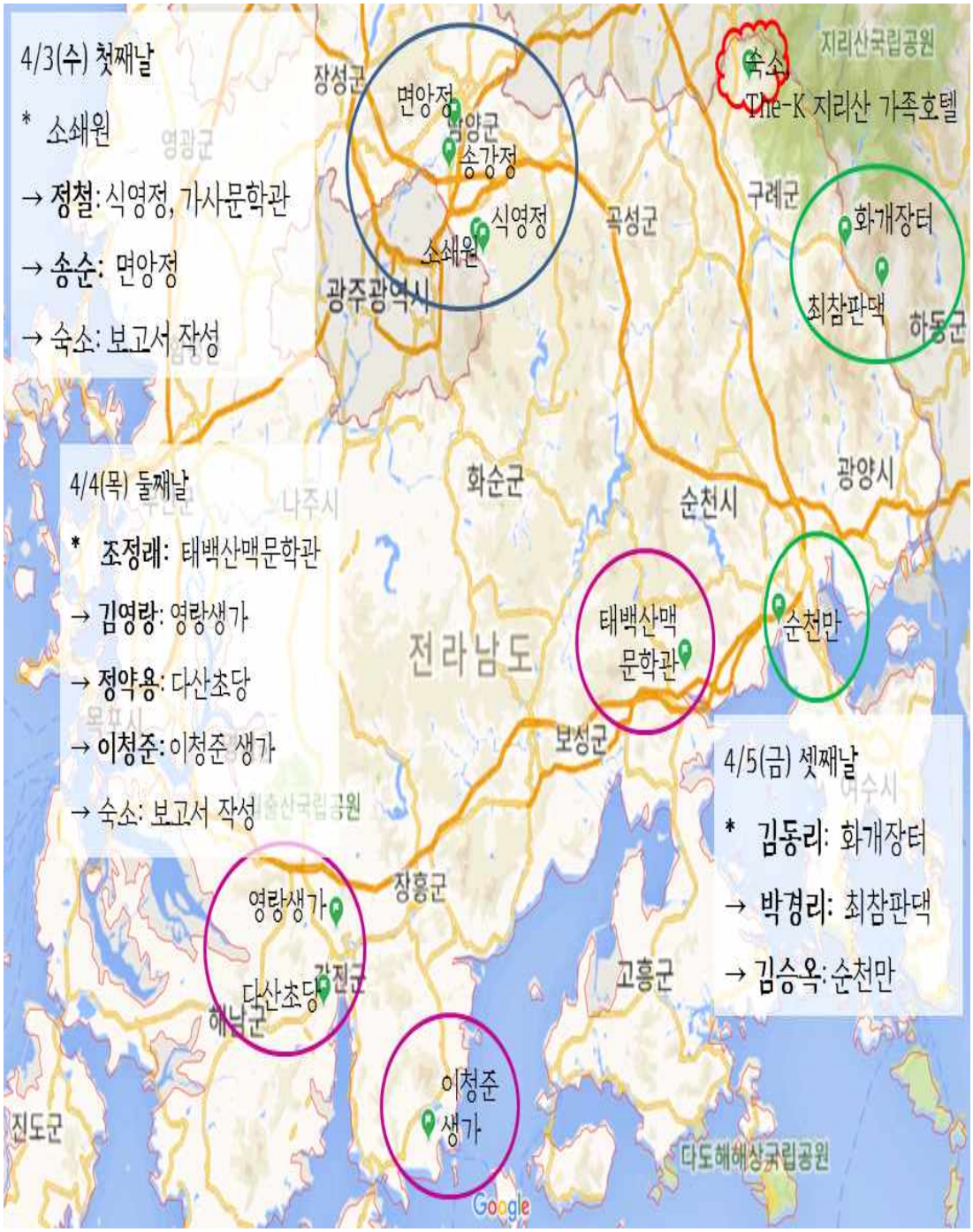
객실번호	학번	이름	비고
	조교	정현아	
	14	이소정	
	16	이혜원	방장
	17	박은선	방장
	18	김혜빈	
	19	임민지	
	19	이동은	
	19	김승현	
	17	하민아	방장
	18	이연호	
	19	정지원	
	19	이혜미	
	19	안수재	
	18	방은진	방장
	19	김서연	
	19	이소현	
	19	이예진	
	19	박유진	
간담회실	18	최예원	방장
	18	민초이	
	19	박세현	
	19	조휘현	
간담회실	14	김태영	방장
	15	우정민	
	18	정병규	
	19	강규민	
	19	김규찬	
간담회실	15	정해성	방장
	16	임무혁	
	18	이상기	
	19	박준현	
	19	김 산	
	15	이정수	방장
	18	정경원	
	18	조성빈	
	19	김병규	
	19	석영준	

한국문학탐방 일정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하동 : 1일차(담양) / 2일차(강진, 장흥, 보성) / 3일차(하동, 순천)

구분	1일차 4.3.(수)	2일차 4.4.(목)	3일차 4.5.(금)
07	07:40 학교 집합	07:30 기상	07:30 기상
08	08:00 학교 출발(4시간 30분)	08:00 조식(50분) 구내식당 (사골우거지국)	08:00 조식(50분) 구내식당 (북엇국)
09	이동	09:00 인원점검 및 출발(1시간)	09:00 인원점검 및 출발(30분) 09:30 화개장터 도착 **<6조>발표: 김동리(20분)** 09:50 인원점검 및 출발(10분)
10		10:00 태백산맥문학관 도착 **<3조>발표: 조정래(50분)**	10:00 최참판댁 도착 **<7조>발표: 박경리(50분)**
11		11:00 인원점검 및 출발(1시간)	11:00 인원점검 및 출발(1시간)
12	12:30 중식(50분) 벼슬집(닭숯불구이+제육볶음)	12:00 영랑생가 도착 **<4조>발표: 김영랑(20분)** 12:30 중식(50분) 보은식당 (백반)	12:00 순천만 도착 **<6조>발표: 김승옥(20분)** 12:30 중식(50분) 순천만일번가 (꼬막비빔밥)
13	13:20 인원점검 및 출발(10분) 13:30 소쇄원 도착(50분)	13:30 인원점검 및 출발(1시간)	13:00 순천만 조별 관람(1시간)
14	14:20 인원점검 및 출발(10분) 14:30 식영정 **<1조>발표: 정철(30분)**	14:00 다산초당 **<5조>발표: 정약용(30분)** 14:40 백련사 도착(50분)	14:00 인원점검 및 출발(4시간30분)
15	15:00 가사문학관 도착(1시간)	15:30 인원점검 및 출발(1시간)	이동
16	16:00 인원점검 및 출발(30분 이동) 16:30 면앙정 도착 **<2조>발표: 송순(30분)**	16:30 이청준생가 도착 **<4조>발표: 이청준(30분)**	
17	17:30 석식(50분) 담양애꽃 (떡갈비정식)	17:00 인원점검 및 출발(30분) 17:30 석식(50분) 정남진음식사랑 (낙지삼합전골)	
18	18:30 인원점검 및 출발(50분)	18:30 인원점검 및 출발(1시간 30분)	18:30 학교 도착 및 해산
19	19:30 숙소 도착, 입실(30분) The-K 지리산 가족호텔	이동	※ 보고서 추후 제출
20	20:00 보고서 작성(30분) 20:30 간담회	20:00 숙소 도착 The-K 지리산 가족호텔 20:30 보고서 작성(30분)	
21	간담회	21:00 간담회	
22	22:00 개인정비 및 취침	22:00 개인정비 및 취침	

한국문학탐방 지도


4/3(수) 첫째날
* 소쇄원
→ 정철: 식영정, 가사문학관
→ 송순: 면앙정
→ 숙소: 보고서 작성
4/4(목) 둘째날
* 조정래: 태백산맥문학관
→ 김영랑: 영랑생가
→ 정약용: 다산초당
→ 이청준: 이청준 생가
→ 숙소: 보고서 작성
4/5(금) 셋째날
* 김동리: 화개장터
→ 박경리: 최참판댁
→ 김승옥: 순천만
장성군
면앙정
담양군
송강정
식영정
소쇄원
광주광역시
곡성군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
숙소
The-K 지리산 가족호텔
화개장터
최참판댁
하동군
화순군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
전라남도
태백산맥
문학관
순천만
보성군
여수시
장흥군
영랑생가
강진군
다산초당
해남군
고흥군
이청준
생가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Google

주소 및 연락처

구분	지역	장소	전화번호	주소
탐방장소	담양	소쇄원	061-381-0115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소쇄원길 17
	담양	한국가사문학관	061-380-2700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877
	담양	식영정	061-380-3141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859
	담양	면앙정	061-380-3151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면앙정로 382-11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061-850-8653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19
	강진	영랑생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길 15
	강진	다산초당	061-430-3911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길 68-35 정다산초당
	강진	백련사	061-432-0837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 백련사
	장흥	이청준생가	061-863-7071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진목1길 9-3
	하동	화개장터	055-883-5722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5
	하동	최참판댁	055-880-2385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66-7
	하동	박경리문학관	055-880-236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9
	순천	순천만습지	061-749-6052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숙소	구례	The-K 지리산 가족호텔 대표번호	061-783-8100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구례	The-K 지리산 가족호텔 객실담당	061-780-7121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식당	구례	The-K 지리산 가족호텔 식당	061-783-7139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담양	벼슬집	061-382-1277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실길 46-22 남향회관
	담양	담양애꽃	061-381-5788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죽향대로 723
	강진	보은식당	061-432-8789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43
	장흥	정남진음식사랑	061-864-9876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3길 15
	순천	순천만일번가	061-745-2100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520

보고서 양식

<한국문학탐방 보고서>

조		학번		이름	
일시		2019년 4월 일 (일차)			
탐방 장소		탐방 내용			
【문학 창작 기반과 관련한 감상】					
【발표 내용 및 답사 일정에 관한 의견】					

발표 내용

조	작가	작품	지역	탐방 장소
1조	정철	사미인곡, 성산별곡	담양	식영정, 송강정 가사문학관
2조	송순	면앙정가	담양	면앙정
3조	조정래	태백산맥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4조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강진	영랑생가
	이청준	선학동나그네, 서편제	장흥	이청준생가
5조	정약용	목민심서, 흠흠신서	강진	다산초당
6조	김동리	역마	하동	화개장터
	김승옥	무진기행	순천	순천만 대대포구
7조	박경리	토지	하동	최참판댁

Ⅱ. 발표 자료

정철이 노래한『사미인곡』과『성산별곡』

-『사미인곡』과『성산별곡』의 줄거리와 배경

인문학부 20191067 이동은

『사미인곡(思美人曲)』의 사(思)는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통상적이나, '사랑하다, 사모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사미인곡』은 미인(美人)을 사랑하여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다.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뿐만 아닌 군주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사미인곡』은 자신을 아껴주었던 조선조 14대 군왕 선조를 향한 충신연주(忠臣戀主)의 정을 가사 속 한 여인이 임을 그리는 모습에 비유하여 노래한 것이다.

『사미인곡(思美人曲)』은 내용적으로 크게 서사(緖詞), 춘사(春詞), 하사(夏詞), 추사(秋詞), 동사(冬詞), 결사(結詞) 6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작품의 서두는 출생부터 시작한다. 나는 임을 좇아 태어났고, 이는 하늘까지 알고 있는 사실로,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다. 임과 나의 사이는 돈독했으나 경황없이 늙어 서로 떨어져 이별하게 되었고, 나는 하계로 내려온 뒤 상심에 화장도 하지 못하고 머리도 다듬지 못하는 등 큰 시름에 빠지고 만다. 춘사(春詞)에서는 봄이 되어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매화 등에 빗대어 노래하며, 계절이 바뀌어 하사(夏詞)에는 임의 옷을 지어 보낸다. 가을이 되어 별과 달을 보며 임을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겨울을 맞을 때까지 나는 여전히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며 외로워한다. 그 마음은 근심이 되어 이내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버리고 만다.

출하리 싀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딕 죡죡 안니다가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싀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줄 모ᄅᆞ셔도 내 님 조ᄎᆞ려 ᄒᆞ노라

<현대역>
차라리 죽어져서 범나비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았다가
향 묻힌 날개로 임의 옷으로 옮기리라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임 좇으려 하노라[1)]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어 범나비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한다. 범나비로 변신한 나를 임이 알아보지 못할까, 의심을 가질 만큼, 임에 대한 사랑이 간절하여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임과 나의 재회를 절실하게 기원하며 작품의 끝이 난다.

정철이『사미인곡』을 지은 시기는 이수(李銖)의 뇌물사건으로 동인들의 탄핵을 받고 창평으로 내려온 그의 50세에서 고향으로 올라간 54세 사이로 추정된다. 조정에서 물러나 낙향, 퇴거한 현재의 상황을 가사에 녹여 군왕, 즉 선조를 향한 자신의 충절과 정을 나타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성산별곡』은 당시 식영정에서 김성원, 정철, 임억령, 고경명이 같은 제목과 압운으로 지은

1) 정재호,장정수(2006),『송강가사(松江歌詞)』, 신구문화사, pp.139-147.

↑ 전라남도 담양군 식영정(息影亭)

한시 식영정 잡영(息影亭雜詠) 20수를 모태로 한 작품이다.

『성산별곡』은 『사미인곡』과 마찬가지로 서사, 춘사 등의 6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사는 손님이 주인 김성원에게 왜 세상을 나가지 않고 적막한 산중에 사느냐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

滄창溪계 흰 물결이 亭뎡子ᄌᆞ 알피 둘러시니
天텬孫손 雲운錦금을 뉘라셔 버혀 내여
닛ᄂᆞᆫ ᄃᆞᆺ 펴티ᄂᆞᆫ ᄃᆞᆺ 헌ᄉᆞ토 헌ᄉᆞ홀샤

<현대역>
청계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렀으니
직녀의 비단폭을 그 누가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치는 듯 호화롭기도 호화롭다[2]

그리고 마치 선간(仙間)과 같은 식영정 주변의 자연경관을 노래한다. 춘사는 성산의 봄 경치와 손님의 생활을 주로 그렸으며, 여름이 되어 한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내는 모습을 나타낸다. 가을이 되어 성산의 달밤의 아름다운 풍경을 읊었고, 동사에는 눈이 내린 경치를 노래한다. 이렇게 사계절의 사설이 끝이 나는데, 이는 이곳을 더욱 신비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사 부분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술을 마시며 거문고를 연주하는 등 신선의 풍모를 보여주며, 손님이 주인이야말로 이골의 진선이라 하며 그의 삶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성산별곡』은 성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서하당 김성원의 삶을 노래한 것이다. 정철이 25세 이후 당쟁으로 인해 정계를 물러나 성산에 머물 때, 그를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사미인곡과 달리 내용 면으로 볼 때 군은이나 충정을 노래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아직 군왕과 직접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시기에 『성산별곡』을 지었기 때문이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

2) 앞의 책, pp.233-246.

조선가사의 대표작『관동별곡』

-『관동별곡』작품 설명

인문학부 20191001 강규민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지은 가사이다. 이 작품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후대인들에게 수용되었고 후대가사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다.『관동별곡』은 당대 성행하였던 사상적 학풍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당시에는 과거시험 과목 중에 가장 중요히 여기던 것이 시부였으니 양반들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신분, 당파, 세계관, 시대의 상거 등을 초월하여 전 사회계층의 문학으로서 널리 유포된 작품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관동별곡』을 분석해보면 정철이 관찰사의 배명과 부임의 동기를 술회하는 <서사>와, 내금강의 동해안 유람의 <본사>, 그리고 망양정에서 달맞이 몽중 선인과의 대화를 통해 작가의 풍류를 술회하는 <결사>까진 추모식 삼단 구성을 통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정의 변화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심미감을 바탕으로 신수를 대하는 작가 여정의 변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작품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면 <서사>에 서는 관찰사를 재수 받은 성은과 목민관으로서의 치민 선정에 대한 의욕과 각오 등을 서술하고 있다. <본사>는 유산 과정을 통해 수려한 금강산의 진면목을 보면 도의 실체로 인식한 산의 유람으로 도도해진 흥취는 성은에 대한 연군의 정과 치민 선정의 의욕을 더욱 느끼며 비로봉 정상으로 점차적으로 이동된다. 서사에서 계속된 관찰사 의무감은 내금강 동정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작품 분위기가 상승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다가 비룡산 정상에 오르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경륜에 대한 한계의 인식은 작품 전반적인 분위기의 하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의식은 신선에 대한 동경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도의 경지인 망양정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며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결사> 부분은 몽중선인 을 만나면서 해결하게 된다. 즉 산수를 대하면서 높은 도에 오르고 싶은 작가는 몽중선인 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상계에 오를 능력을 갖추었다는 비현실적인 꿈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경륜의 한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 했다.

金금剛강臺대 맨 우層층의 仙션鶴학이 삿기 치니
春츈風풍 玉옥笛뎍聲셩의 첫잠을 깨돗던디
縞호衣의玄현裳샹이 半반空공의 소소 뜨니
西셔湖호 녯 主쥬人인을 반겨셔 넘노는 듯

<현대역>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니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선잠을 깨었던지
흰 저고리 검은 치마로 단장한 학이 공중에 솟아 뜨니
서호의 옛 주인 임포를 반기듯 나를 반겨 넘나들며 노는 듯하구나

『관동별곡』에서는 자연의 의미도 중요하다. 작가는 자연을 동경하면서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연의 본체는 강함이든 부드러움이든 시속의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즉 송강이 서있는 자리는 백성을 살피고 임금을 못 잊어 하는 곳 인지 결코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관동별곡』의 형식적 특징은 역동적인 구조방식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역동적 구성 형식이란 여행이라는 상황에 의하여 동기화된 <구슬꿰기>라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관동별곡』은 4대 20소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소단에 속한 구절들은 그 소단을 향하고 각각의 소단은 각각의 대단을 향하고 다시 각각의 대단이 전체의 구성을 향하여 서로 역동적이고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관동별곡』은 여러 수사법도 첨가되었는데 여기서 수사적 표현이란 작품의 운치나 내재된 사상이나 감정을 윤기 있게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관동별곡』에 특이한 수사법은 생략법인데 생략법은 주로 작품 전체에 노정 전개에 사용되는데 노정은 주로 생활 묘사를 생략하고 간단한 분위기 정도를 자아내는 노정 제시로만 알고 있다. 이렇듯 『관동별곡』은 당시에 표현 언어의 특징은 간결성 및 함축성, 생동감 있는 묘사와 서술, 그리고 사실성을 표출하고, 우리말의 특성과 묘미를 잘 살려서 작자의 감성을 대상에 투자하여 탁월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3)]

3)김현주(2002), 『정철의 관동별곡 연구: 교육적 적용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pp.15-45.

송강 정철의 삶과 문학

- 정철의 작품세계와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71037 박은선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은 정치가이자 문학인이고 26세 입관하여 58세 죽음에 이르며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겪고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게 된다. 낙향을 한 뒤 대부분을 담양에서 자신의 문학적 기질을 뽐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성산별곡』『관동별곡』 등을 남기며 문학사를 빛냈다.

그가 남긴 시조는 조선 중기 주자학에 매몰된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많이 담고 있다. 정철이 살았던 조선 중기의 시조는 자연을 노래하거나 성리학적 이념을 형상화하며 충군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철의 시조는 소재에서 유사한 면모를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작품 성격에 있어서는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정철은 일반 유자들이 가지는 현실지향의 근본적 성격을 바탕에 가지면서도 주기적 세계관을 가짐으로써 더 현실지향성을 가졌고 유년에 행복한 궁중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그의 현실지향은 구체적으로는 궁중 지향으로 나타났다. 시조에서 군주와 단절된 상황일 때에 절대적 지향성을 가지고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자아의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어 군주를 향한 절대적 지향의 당위성을 드러냈다. 군주와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궁중에서의 관직 생활은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였다. 그러나 단절의 상황을 수용하며 정피 현실에서 물러나 은거의 생활을 즐기는 내용의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정철이 군주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는 자연과 호방함의 정서를 드러냈고 군주와 부정적 관계 속에 처했을 때는 자연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거나 자연과 단절된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다. 음주에 있어서 정철은 군주와의 우호적 관계일 때는 술을 통해 여유와 유흥을 주된 내용으로 표현했고 군주와 단절된 상황에서는 고뇌와 근심을 씻기 위해 통음에 자신을 내맡기는 감정적 행동을 시조의 표현했다.

정철의 문학은 국문학에 큰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국문학 연구가 시작되던 이른 시기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사 문학에 대한 연구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

4)전재강(2004),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 『시조학논총』, 21호, pp.207-239.

물처럼 맑고 소나무처럼 우직한

- 정철의 생애와 업적

인문학부 20191079 임민지

정철(鄭澈)은 1536년(중종 31)에 서울 장의동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연일(延日)이고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이다. 그는 명종 즉위 후 10살 때 발생한 을사사화(乙巳士禍)에 계림군(桂林君)을 비롯한 부친과 형들이 연루되면서 급격히 가세가 위축되었고 전라도 창평으로 낙향하여 약 10여 년을 지낸다. 이 시기 정철은 임억령(林億齡)에게 시를 배우고 김인후(金麟厚), 송순(宋純), 기대승(奇大升) 아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송익필(宋翼弼), 이이(李珥), 성혼(成渾) 등과 같은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이름을 알렸던 전화점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유배 생활이 1551년(명종 6)에 원자(元子) 탄생의 은사(恩赦)로 풀려나며 정철은 그를 따라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전라도 담양 창평 당지산 아래로 이주했다. 그리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장원급제를 하기 전까지 10여 년 생활을 이곳에서 영위한다.

후에 정철은 17살 때 문화 유씨(文化柳氏)로 유강항(柳强項)의 딸과 1552년(명종 17)에 혼인하여 슬하에 4남 2녀 자녀를 두게 된다. 그는 1566년(명종 21)에 함경도 암행어사를 지낸 뒤 이이와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 하였고 1578년(선조 11)에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기용되었으며 승지(承旨)에까지 올랐다. 1580년(선조 13)에 강원도 관찰사로 등용되었고, 이후 3년 동안 전라도와 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내며 『관동별곡』을 지었다. 또한, 시조 『훈민가(訓民歌)』 16수를 지어 널리 낭송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교화에 힘쓰기도 하였다.

그 뒤 그는 전라도관찰사·도승지·예조참판·함경도관찰사 등을 지냈으며 선조 16년 예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대사헌이 되었다. 그러나 1585년(선조 18)에 동인, 서인의 당파직으로 서인이었던 그를 동인이 탄핵하면서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 창평으로 내려가 4년 동안 은거 생활을 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이때 정철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성산별곡』 등 많은 가사와 단가를 지으며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1589년(선조 22)에는 우의정으로 발탁되어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을 다스리게 되었고 철저히 동인 세력을 추방하였으며 다음 해 좌의정에 올라 인성 부원군(寅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는 1591년(선조 24)에 동인인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의 계략에 빠져 혼자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건의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샀고 파직되었다. 그리고 명에 따라 진주(晉州)로 유배되었다가, 이어 강계(江界)로 이배(移配) 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백성들의 요구로 다시 귀양에서 풀려나 왕을 의주까지 호종했고 다음 해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러나 곧 동인들의 모함으로 사직하고 강화의 송정촌에 우거하다가 1593년(선조 26)에 58세로 생을 마감한다.

《참고문헌》

박영주(1999), 『정철 평전』, 중앙M&B.

박영주(2003), 『고집 불통 송강평전』, 고요아침.

송강 정철이 노래한 아름다운 자연, 그 곳

- 정철과 관련된 유적지

국어국문학과 20181065 이상기

송강 정철이 노래한 아름다운 자연, 그 첫 번째는 전라남도 담양군에 위치한 식영정이다. 식영정은 서하당 김성원이 스승이자 장인인 임억정을 위해 1560년에 지은 정자로 현재 전라남도 기념물 제1호이다.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의미를 가진 식영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주변에는 수령이 근사한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고 이곳 식영정에서 정철은 노송의 숲 속에 묻힌 식영정의 정취와 주변의 풍광을 즐기며『성산별곡』을 지었다고 한다. 김성원, 임억정, 정철, 고경명 이 넷을 당시 사람들은 식영정 사선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성산의 경치 좋은 20곳을 택하여 20수씩 모두 80수의 식영정 이십영 을 지었는데 바로 이 식영정 이십영이 정철의『성산별곡』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송강 정철이 노래한 아름다운 자연, 그 두 번째는 담양군에 위치한 송강정이다. 송강정은 송강 정철이 대사헌 벼슬을 그만두고 이곳 담양 창평에 내려와 초막을 짓고 살던 곳이고 당시에는 죽록정 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후에 후손들이 정철을 기리기 위해 지금의 정자를 세웠고 이곳을 바로 송강정이라고 한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전라남도 기념물 제1-2호이다.

정철은 이곳에서 4년간 머물며『사미인곡』과『속미인곡』등 뛰어난 가사를 비롯해 많은 단가를 남겼다. 송강정 옆에는 송강정 선생 시비가 있으며 이에는 사미인곡 전문이 쓰여 있다.

송강 정철이 노래한 아름다운 자연, 그 마지막은 광주에 위치한 환벽당이다. 환벽당은 김윤제가 관직을 떠난 후 고향에 돌아와 지은 정자이며 정철은 김윤제의 제자이다. 정철은 이곳 환벽당에서 16세부터 27세에 관계에 나갈 때까지 머물며 학문을 닦았다. 확벽당은 정면 2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고 환벽당과 앞에 설명한 식영정, 송강정 이 세 가지를 통틀어 현재 정송강유적이라고 불리고 있다.

『면앙정가』 작품해석 및 작품세계

- 성장하는 재지사족의 기운이 담긴 『면앙정가』에 대하여

국어국문학과 20181031 김혜빈

<면앙정가 ① 원문>
无等山 ᄒᆞᆫ 활기 뫼히 동다히로 버더 이셔
멀리 ᄲᅦ쳐 와 霽月峯의 되여거ᄂᆞᆯ
無邊大野의 므ᄉᆞᆷ 짐쟉 ᄒᆞ노라
일곱 구비 홈디 움쳐 므득므득 버럿ᄂᆞᆫ ᄃᆞᆺ
가온대 구비ᄂᆞᆫ 굼긔 든 늘근 뇡이
선ᄌᆞᆷ을 ᄀᆞᆺ 씨야 머리ᄅᆞᆯ 언쳐시니
…
흰구름 브흰 煙霞 프로니ᄂᆞᆫ 山嵐이라
千巖 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셩 들명셩 일히도 구ᄂᆞᆫ지고
오르거니 ᄂᆞ리거니 長空의 ᄲᅥ나거니 廣野로 거너거니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디트락
斜陽과 섯거디어 細雨조차 쁘리ᄂᆞᆫ다.

<면앙정가 ① 현대어 해석>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어 버리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는 넓은 들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일곱 굽이가 한데 움츠려 무더기 무더기 벌여 놓은 듯하구나
그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혀 놓은 듯하며
…
흰구름과 뿌연 안개와 놀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로구나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며들며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고 내리고 넓은 하늘에 떠나보고 넓은 들판으로 건너보며
푸르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
석양에 지는 해와 섞이어 보슬비마저 뿌리는구나.

<면앙정가 ② 원문>
人間을 ᄲᅥ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ᄒᆞ고 져것도 드르려코
ᄇᆞ롬도 혀려 ᄒᆞ고 ᄃᆞᆯ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뇨

…
江山風月거놀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샹의 李太白이 사라오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렁 굼도 亦君恩이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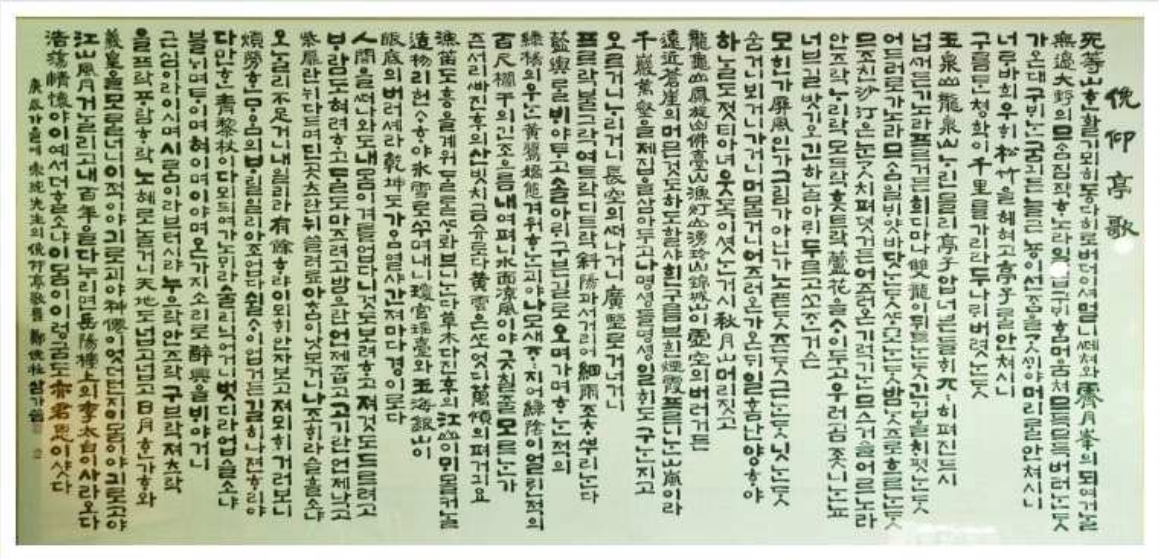
<면앙정가 ② 현대어 해석>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에 틈이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
강산풍월을 거느리고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야말로 이보다 더할 것인가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①은『면앙정가』초반부이며, 면앙정을 세우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화자는 자신이 위치에서 소박하게 자연을 담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높고 큰 시각으로 자연을 조망한다. 먼저 무등산에서부터 장쾌하게 뻗어 나온 산맥과 그로 둘러싸인 광야를 잡아내어 그것을 끌어안은 자리에 누정을 앉힌다. 광야를 흐르는 강물을 변화무쌍하게 포착하고, 물가의 넓은 흰 모래펄이며 기러기 떼의 모습을 활기 있게 묘파한다. 후에 다시 주변 자연으로 시선을 옮겨 산들이 만들어 내는 하늘 아래 장관을 경이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면앙정가』의 화자는 광활한 하늘과 대지를 자신의 누정으로 끌어안는 화자다. 또한, 높은 시각으로 자연을 조망해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킨다. 눈앞에 펼쳐진 대지 위에 군림하는 주인의 모습이다. 생생한 아름다움을 경이의 눈으로 잡아내는 것은 자신이 주인인 이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가이다. 이 태도는 자연과 합치하려는 태도가 아닌 독립적이고 고답적인 정신세계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②는『면앙정가』후반부에 해당하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면앙정의 자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채워진다. 누정의 주인이 풍성한 자연의 경치를 찾아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일상에 대한 모습이다. 여기서 자연과 사람은 활기와 흥겨움으로 가득 차서 밤도 줍고, 고기도 낚고, 섬돌에 떨어진 꽃잎도 쓸며 살아가는 주인의 일상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한가한 분주함은, 독립적이고 고답적인 인간이 사는 방식이다. 가난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지팡이 하나만으로 자연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리라는 것도 그러한 정신세계의 단면이다. 마지막의 "이 몸이 이렁굼도 역군은이샷다"라는 대목에 집중해볼 때, 고답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사는 공간에서의 삶이 왕의 은혜라는 뜻이다. '강호에서 누리는 삶은 군주의 통치 영역이며, 강호와 속세의 세계가 군은이며 자연의 질서는 사회의 질서와 합일의 관계라는 점을 확인'한다. 작품은 '강호 자연은 군주의 통치가 행해지는 세계에 연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면앙정가』의 세계상은 16세기 전반기 지방 사회에서 성장한 재지사족의 권위가 자연의 형상을 빌어 나온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향촌의 지배 세력으로서 권위가 자연을 통해 미적으로 전화되어 나오는 것이다. 위에 나온 모습들은, 향촌이란 세계에서 왕권과 대등하게 하층민

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성장하는 재지사족의 기운이 만들어낸 미적 세계라 할 수 있다.



(한국가사문학관 1층 로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창원(2004), 『강호시가의 미학적 탐구』, 보고사.

강호가도의 확립『면앙정가』

-『면앙정가』의 문학사적 의의

인문학부 20191008 김규찬

고전 시 가사에서 '담양'은 호남 사람의 근거지이자 중심지로서 그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던 장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자연 시와 관련하여 사대부들의 체험과 인식이 반영된 장소로서 그 의미는 각별하다. 한시와 가사, 85시조를 짓고 즐기면서 문인들이 가단을 이루어 함께 읊조리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담양'이라는 장소와 관련하여 그 체험과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송순의 작품인『면앙정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문학적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첫 번째로는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賞春曲)'의 계통(자연 친화의 사상)을 이어받고 이후 작품인 정철의『성산별곡(星山別曲)』과『관동별곡(關東別曲)』을 잇는 교량적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면앙정가』와『성산별곡』은 같은 담양이라는 지역을 가사로 표현했는데『면앙정가』의 '담양'이 절대 조화의 자연 세계, 여유와 달관, 자긍, 장소성을 지닌 곳이라면,『성산별곡』의 '담양'은 신선이라는 만족감에 기대어, 현실과 이상의 갈등, 그 일시적 해소의 장소성을 지닌 곳이었다. 멈추어 아름다운 '담양'의 자연 속에서도 인심, 세상일로 인한 갈등과 번민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곳, 완전한 물아일체에 이르지 못한 곳이다.『면양정가』의 '담양'이 송순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로서,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 부조리와 불안, 반감과 분노가 전혀 없는, 자긍심과 평정심 . 정서적 안정감을 지닌, 진락에 도달한 귀의처였다면,『성산별곡』의 '담양'은 자기 정체성의 회복, 안정과 성장의 안식처로서 선경에 대한 동경과 예찬의 대상임에도, 미진한 현실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녹아있는 곳,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출렁이는 갈등, 젊음의 불안과 욕망이 내재한 곳, 자연에 완전히 몰입, 동화되지 못한 채, 그 일시적 해소를 도모했던 의지처였다. [5)]

두 번째로는 강호가도(江湖歌道 : 자연의 아름다움 + 유교적 충의 사상)를 확립한 대표작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이르러서 자연미를 발견하고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정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그 뒤에 두고두고 모범이 되며 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을 듣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면앙정 주변의 산수의 아름다움과 이를 유상 하는 즐거움, 그리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유감없이 표현하였고, 형식적으로는 어사(語辭)가 청완(淸婉)하고 유창(流暢)하였다.[6)]『면앙정가』는 호남 가사 문학의 원류가 될 뿐 아니라, 그 내용 ·형식 ·가풍 등은 앞에서 말했듯 정철(鄭澈)의『성산별곡(星山別曲)』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사 문학의 계보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시에는 송순의 우주관과 자연관, 인생관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천인합일의 경지와 자연과의 물아일체, 호연지기의 흥취를 추구하는 사림으로서의 자세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면앙정'이라는 장소 및 송순의 삶과 관련하여 선언적이고 종합적이며 궁극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송순이 지향하는 자연 속의 삶은 무위자연의 도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본성대로 인간의 땅에서 윤리를 실천하면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유가적인 것이며, '면앙정'은 현실초탈의 장소가 아니라 조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체험적 현실이 된다.[7)]

---

5) 김은희(2015),『담양의 장소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시가문화학회 pp.2-30.
6) 정익섭(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p.91.
7) 김은희(2015), 위의 논문. p.198.

유연하고 개방적인 가사문학

- 가사문학 설명

국어국문학과 20171104 하민아

가사는 4음4음보 연속체로서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는 시가장르이다. 이러한 가사의 형태는 고정불변의 상태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모를 겪어 왔다. 초기의 가사는 비교적 단형이고 종결규칙을 지니고 있었으며 4음4음보를 기준으로 해서 음수와 음보가 유동적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오면 장편의 가사가 등장하고 종결규칙이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며 음보와 음수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또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연이 구분되고 매 연마다 반복구가 실현되며 음수의 고정성이 더욱 엄격해지는 등 전대의 가사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가사가 실현된다.[8)]

시가의 향유방식은 음악의 결합 정도에 따라 가창, 음영, 율독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창은 악기 반주와 곡조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방식이며, 음영은 악기 반주와 곡조 없이 단순한 가락을 반복하면서 읊는 방식이고, 율독은 가락도 없이 율격적인 리듬에만 의존하여 읽는 방식이다. 가창에서 음영으로 나아갈수록 음악성이 점점 감소하여 율독에 이르면 거의 0에 가까워진다.[9)] 이 세 가지 방식은 어느 시대 어떤 장르에서나 가능한 향유방식으로 항상 존재해 왔다.

가사의 향유방식도 그 형태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왔다. 17세기까지의 가사는 대체로 가창 되었고, 18세기 무렵부터는 음영이 보편적인 향유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개화기에 이르러서 가사가 신문지상에 발표되자 그것은 율독의 방식으로 향유되기 시작했다. 가사는 가창의 관습 속에서 가창의 장르로 탄생했다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점점 음악과 멀어져 갔던 것이다.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 그리고 개화기를 거치는 동안 세 가지의 가능한 향유방식인 가창, 음영, 율독 모두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가사는 특이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가사는 내용적인 복합성과 개방성에 어울리게 향유방식에 있어서도 세 가지 향유방식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고 유연한 장르였다고 할만하다. 가사 이외의 장르는 향유방식이 변화에 봉착할 경우 작품의 생산이 종식되거나 형태적인 환골탈태를 겪어 다른 장르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다.[10)]

가사는 가창에서 음영으로, 음영에서 다시 율독으로 향유방식이 변화하는 데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형태 변모를 겪기는 했지만, 그런 변모가 다른 장르에서만큼 강하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가창가사와 음영가사의 형태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은 물론이며, 율독의 방식으로 향유된 개화가사의 경우도 전시대의 가사를 계승한 면모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다.[11)] 이렇게, 가사는 향유방식의 변화에 직면하여 형태적인 변모를 크게 겪지 않은 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개방적인 장르였고, 그래서 가능한 세 가지 향유방식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내력을 지닌 장르라고 할 수 있다.

---

8) 임재욱(2013), 『가사문학과 음악』, 보고사, p.13.
9) 위의 책, p.116.
10) 위의 책, p.52.
11) 위의 책, p.53.

송순의 흔적을 따라서

- 송순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81097 정병규

송순(宋純)은 1493년(성종 24년) 11월 14일에 전라남도 추성군(현재의 潭陽) 기곡면 상덕리에서 부친 태(泰)와 모친 순창 조씨(淳昌 趙氏) 사이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이명으로 수초(遂初) '처음 정한 뜻을 결코 변하지 않고 지켜가라' 또는, 성지(誠之) '일정한 목표를 세워 정진하라'는 뜻으로 통한다. 호를 기촌(企村), 송순이 자란 곳의 이름에서 빌어온 것이다. 또는 면앙(俛仰), 사림의 후학들이 정자의 이름을 가져와 부른 것이다.

송순이 어려서부터 총명(聰明)하여 독서를 좋아하며 예(藝)에 능하였다고 한다. 9세 때에 『곡조문(哭鳥文)』을 지었음이 전해져 오고 있다. 1513년(중종 8년), 21세의 나이로 진사(進士)를 하였고, 1519년(중종 14년), 27세에 별시문과 을과에 급제하였다. 당시 시험관이었던 조광조(趙光祖), 안당(安塘), 김구(金絿), 김식(金湜) 등은 송순의 답안을 보고 계운 김일손(溪雲 金馹孫) 이후 이와 같은 문장이 없었다며 절찬했다고 하였다.[12] 승문원 권지정자로 임명받아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520년(중종 15년), 28세에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에 제수되어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21년(중종 16년), 29세에 『남관백설(藍關白雪)』, 『석문청송(石文靑松)』, 『동정황감(洞庭黃柑)』 등 3수의 칠언율시로 일등하고 활 한 장을 하사(下賜) 받았다고 한다. 1523년(중종 18년), 31세에 예문관 봉교로 있었지만 부친의 초상으로 인해 예법과 같이 출상하였다. 이후 풍수당(風樹堂)을 지어 시묘살이를 하였다고 한다. 1524년(중종 19년), 32세에 기촌 서북에 있는 면앙정(俛仰停) 터를 매입하였다. 1527년(중종 22년), 35세에 흥문관 지제교 겸 경연 검토관 관직을 내려놓고 귀향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 사간원 정은으로 다시 등용되었다. 1530년(중종 25년), 38세에 공론은 김안로(金安老)를 등용하고, 송순은 대간(臺諫)이 되어 불가를 역설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진 못하였다.[13]

1531년(중종 26년), 39세에 동궁작서(東宮灼鼠)의 변에 휘말리게 되고 시의(時議)에 밀려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14] 1533년(중종 28년), 41세에 김안로가 국권을 잡고 혼란을 만들어 어진 선비들을 배척한 것에 분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면앙정을 짓고 『면앙정삼언가(俛仰停三言歌)』 등과 같은 시들을 읊으며 지냈다. 1537년(중종 32년), 45세에 홍문관 부응교에 제수되었고 여러 공직을 거쳐 봉직하였다. 1552년(명종 7년), 60세에 면앙정을 중수하였고 기대승(奇大升)이 『면앙정기(俛仰亭記)』를 썼다. 1560년(명종 15년) 68세에 신병으로 사직서를 올린 후 고향에 돌아왔다. 1568년(선조 1년), 76세에 한성부판윤이 되어 『명종실록(明宗實錄)』을 찬수하였다. 이듬해, 한성판윤으로 다시 의정부 우참찬 겸 춘추관사로 옮겨갔다. 하지만 그는 병으로 인하여 해직을 간곡히 청했지만 선조가 윤허하지 않고 지중추부사를 명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후 14년의 여생을 보냈다. 1582년(선조 15년), 90세 2월에 송순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

12) 곽영란(2004), 「송순 국문시가의 소재와 표현법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4.
13) 周磊(2014), 「宋純 漢詩의 表現的 特徵과 主題 硏究」,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7.
14) 周磊, 위의 책, p.18.

송순의 마음이 담긴 정자 '면앙정'

- 유적지 '면앙정'

인문학부 20191022 김승현

면앙정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송순(1493~1582)이 고향 마을인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뒷산 제월봉 언덕 위에 지은 정자이다. 정자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송순의 호이기도 하다. 면앙(俛仰)이란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으로, 아무런 사심이나 꾸밈이 없는 너르고 당당한 경지를 바라는 송순의 마음이 담겨있다.

정자를 향해 가는 길에는 돌계단이 있다. 계단을 다 오르면 너른 평지가 나서고 그 언덕 끝에 수수한 정자가 있다.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규모인데, 가운데 한 칸짜리 방이 있고 빙 둘러 사방에 마루가 깔려 있어 주변의 자연을 느낄 수 있다.

관직을 은퇴한 송순은 9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온전히 면앙정에 머물며 유유자적하는 가운데 많은 가사를 남겼다. 또한 김인후, 임억령, 정철 등이 좋은 경치와 노학자를 찾아 이곳을 드나들며 시 짓기를 배우고 즐겨, 이곳은 호남 제일의 가단(歌壇)을 이루었다.

정자 안에는 퇴계 이황과 하서 김인후의 시, 고봉 기대승의 『면앙정기』, 백호 임제의 『면앙정부』, 석천 임억령이 면앙정에서 바라보는 30가지 좋은 경치를 노래한 『면앙정 삼십영』, 그리고 송순 자신의 『면앙정 삼언가』등이 걸려있다.

정자 앞에는 가사문학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면앙정가』 한 구절을 새긴 비가 서 있다. 정자 앞과 뒤에 선 큰 참나루 두 그루는 송순이 정자를 지은 후 기념으로 심은 것이라 전해지며, 제월봉 정상 쪽으로 100m 간 곳에는 송순의 무덤이 있다.

송순이 면앙정을 두고 읊었다고 전해지는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삼가 지어 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이 시는 우리 민족의 자연주의적 정원관이 잘 나타나 있다.[15)]

원래의 정자는 선조30년(1597)에 임진왜란으로 부서졌고 1654년에 후손들이 다시 지은 후 몇 차례 보수하였다. 건물 자체는 간소하지만 역사적 의의가 크기에 1972년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었다.

---

15)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5), 『답사여행의 길잡이, 전남』 5권, 돌베개, pp.47-49.

조정래, 비극의 현장을 이야기하다

-소설『태백산맥』설명

인문학부 20191096 정지원

<태백산맥>은 1983년 출간되기 시작하여 89년에 완간된 조정래가 지은 대하 장편소설이다. 전체 4부, 전 10권으로 간행된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16]으로 1948년부터 1953년까지 5년 동안의 여순사건과 6.25 전쟁과 같은 역사적 시간 흐름을 다루고 있다. 총 25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이며 80년대 한국문학사의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역작가와 평론가 50명이 뽑은 <한국의 최고 소설>, 출판인 34명이 뽑은 <이 한 권의 책> 1위, 독자가 뽑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1위 등으로 기록되기도 했다.[17]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은 배경이 되는 시기에 따라 크게 4부로 구성할 수 있다. 제1부 '한의 모닥불'은 1948년 10월 24일 밤을 첫 장면으로써 시작한다. 1948년 여수주둔 국군14연대의 반란을 일으킨 좌익 반군들이 벌교를 장악함으로써 좌익이었던 염상진 일당은 조계산으로 쫓겨 가 율어면[18]을 점거한다. 이들은 농지개혁을 실시하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해방구를 만들었다. 벌교가 수복[19]되며 다시 들어온 경찰서장 남인태는 좌익 색출작업에 나서고 민족주의자였던 김범우의 노력에도 수많은 입산자[20]들이 경찰과 우익희생자 가족들에게 시달린다. 표가 나는 우익들을 빼놓고 대부분 끌려 나가 심사를 받았고 총살을 당하거나 수장을 당하는 등 숱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제2부 '민중의 불꽃'에서는 토지소유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담고 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농지의 소작[21] 비율은 65%였으며, 강점기 당시의 일본인 소유농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었다. 벌교 인구의 8할이 농민이고, 그 9할이 소작농인 상황에서 벌교 사람들이 기다리던 농지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주들의 소작인에 대한 착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자신의 농지를 소작인 몰래 처분하거나 뒤로 빼돌리는 일이 빈번해졌다. 농민들의 분노 속에서도 지주들의 땅 빼돌리기는 계속되었고,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지만 군경 및 청년단은 농민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짓밟는다. 그러던 중, 농지개혁법이 발표되지만 이 내용이 유상몰수 유상분배[22]라는 것을 알고 분노하며 민심은 좌익 편으로 돌아선다.

제3부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소제목을 갖으며 6.25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1950년 6.25가 발발함으로써 벌교는 다시 염상진 등이 장악한다. 북한 공산주의 노선을 택해 자진해서 인민군에 입대한 김범우와 같이 공산주의자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고, 피난 수도 부산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이 빨갱이라는 의심만으로 특무대원들에 의해 수장을 당한다. 교착상태[23]에 있던 전쟁은 인천상륙작전이 진행됨에 따라 인민군은 퇴각한다. 벌교에서도 염상진 등

---

16) 전지적 작가 시점(全知的作家視點) :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세계까지도 분석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작가가 소설 속의 인물의 내면세계와 외부 세계를 모두 관장하며, 작가의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해석하기도 한다.

17) 임규찬(1999),「작품과 시간 - 조정래의 태백산맥론」,『문예미학5권』5권, p.88.

18)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19) 수복(收復) : 잃었던 땅이나 권리 따위를 되찾음.

20) 입산자 : 빨치산, 좌익.

21) 소작(小作) : 농토를 갖지 못한 농민이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일.

22) 유상몰수(有償沒收) :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이나 권리 따위를 빼앗는 일.
유상분배(有償分配) : 적당한 대가를 받고 재산이나 권리 따위를 나누어 주는 일.
소작인들이 바란 것은 '무상몰수(無償沒收) 무상분배(無償分配)'였다.

은 다시 입산[24]하였고 많은 소작인들이 염상진을 따라 입산한다.

제4부 '전쟁과 분단'에서는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빨치산 투쟁이 종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휴전이 성립됨에 따라 입산자들, 즉 빨치산들은 빨치산 투쟁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다. 이 투쟁에서 반 이상이 병으로 죽어갔고, 북에서 남로당계열[25]의 숙청 소식이 전해지며 그들은 전의를 상실한다. 김범우는 미군에 포로로 잡혀갔다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 군경의 대대적인 지리산지구 소탕작전이 전개되며 염상진 부대는 수많은 전투를 하였으나 염상진은 자폭한다. 이로써 염상진 등이 바라던 '인민해방''사회주의 혁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된다. 반면에 염상진의 희망인 하대치는 죽지 않았다. 염상진의 장례가 치러진 뒤, 하대치와 그의 일행이 염상진의 무덤에서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내용으로 <태백산맥>은 막을 내린다.

<태백산맥>은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형식들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시대와 환경들에 관련된 모든 사회적 과정들을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전형적인 행동과 상황으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6] 작가는 국방군의 토벌작전에 밀려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간 빨치산들의 행적을 써냈고, 그들이 선택한 이데올로기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했다.[27] <태백산맥>은 이처럼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된 역사를 복원하는 한편, 그것을 딛고 해방공간,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중요시기를 그려낸 작품이다.[28]

《참고문헌》

김종오(1992),『소설 太白山脈 그 현장을 찾아서』, 종소리.

박종철(1988),「특집 : 한국의 정치와 국가 : 1 공화국의 국가형성과 농지개혁」,『한국과국제정치』, 4권1호, pp.40-41.

서은주(1995),「다시 읽는 역사문학 : 소설론 ; 역사와 인간의 만남, 그리고 균열-조정래의 태백산맥론」,『현대문학의 연구』, 5권, pp.7-126.

23) 교착상태(膠着狀態) : 그대로 고정되어 조금도 변동이나 진전이 없는 상태.
24) 입산(入山) : 산속에 들어감.『태백산맥』에서는 좌익이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25) 남조선노동당(남로당) : 1946년 11월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이 합당하여 조직한 공산주의 정당.
26) 임규찬(1999),「작품과 시간 - 조정래의 태백산맥론」,『문예미학』5권, p.93.
27) 권영민(2004),『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p.914.
28) 정호웅(2001),『태백산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지역 특성과 전형적 인물군을 조명한『태백산맥』

-소설『태백산맥』의 의의

인문학부 20191061 안수재

<태백산맥>은 전라남도 벌교군이 아니라 보성군 벌교읍을 주된 무대로 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본격적으로 조명했는데, 등장인물 거의 전부가 이곳 벌교 출신이며 대부분 사건이 벌교에서 벌어진다. 배경이 되는 벌교읍에는 <태백산맥>과 관련된 물품들을 전시해 놓은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을 정도로 소설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작품 속에 생생한 전라도 사투리나 세세한 보성군 벌교읍 묘사가 눈에 띄는데, 지역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며 관련 지식을 알게 해준다는 효용성이 있다. 여전히 소설 <태백산맥>의 흔적을 찾으러 관광객들이 벌교읍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태백산맥은 특유의 작품성으로 베스트셀러 단열에 올라 관광객들을 끌어 모았고 벌교읍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향토적인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해 지역의 문화에 관심을 끌게 했다는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좌우익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잘 나타냈으며 빨치산[29]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근현대 역사를 뿌리부터 나타낸 의의가 있다. <태백산맥>의 시대적 배경은 광복 직후의 근현대 시기이며, 당시는 좌파[30]와 우파[31]로 사상이 갈리어 한국의 정국이 매우 혼란하고 불안정했다. <태백산맥>은 이 시기의 혼란한 정국을 자세히 담아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인간 생활의 형상화를 통해 역사를 읽어내야 하는 역사소설로서의 미덕[32]을 지닌 작품이다. 이 소설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원인을 악덕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로 설명했다. 특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전라도 지역은 곡창지대[33]라는 조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수탈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라도 민중에게 불만이 쌓이게 했지만 윗 계급의 억압으로 인해 표출되지 못했고, 그러한 힘이 응축되어 민란의 형태로 사회저항의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즉, 토지를 둘러싼 윗 계급에 속하는 지주와 민중들에 속하는 소작인의 계급적 갈등과 얽힘을 현실감 있게 풀어내어 이데올로기와 분단과 전쟁을 설명했으며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작품들에서 자주 다루지 않은 빨치산의 행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작품 속 염상진이라는 인물을 대두로 하여 빨치산의 지리산 투쟁부터 사소한 게릴라전[34], 그리고 염상진의 자결을 마지막으로 빨치산의 종결까지 담아낸 근현대 창작물은 <태백산맥>이 유일하며 그 독보성에도 의의가 있다.

세 번째로 60명 정도의 생동감 있고 개성 있는 인물들로 당시 세력들을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삶의 과정을 인간의 개인적 운명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이 빚어내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경과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는 모든 계층의 인간들에게 관심을 부여하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세부를 묘사한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하나로 융합하고, 개개의 사건과 삽화를 연결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등장인물마다 각자 역사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벌교에 뿌리박은 소작농

---

29) 빨치산 : 파르티잔(partisan), 6·25 전쟁 전후에 전라북도 순창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공산 게릴라.
30) 좌파(左派) : 좌익의 당파, 어떤 단체나 정당 따위의 내부에서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경향을 지닌 파.
31) 우파(右派) : 우익의 당파, 어떤 단체나 정당 따위의 내부에서 보수주의적이거나 온건주의적 경향을 지닌 파.
32) 권은미(2011).『태백산맥에 형상된 미시사와 대중성』, p.324.
33) 곡창지대(穀倉地帶) : 쌀 따위의 곡식이 많이 나는 지대.
34) 게릴라전(guerrilla戰) : 유격전(遊擊戰), 적의 배후나 측면을 소규모의 유격대가 기습、교란、파괴하는 전투.

중 하나인 김범우의 삶의 곡절을 통해 소작농들이 벌이는 투쟁의 역사적, 민족적 정당성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손승호가 겪은 사회 혼란 속에서 생긴 사상의 변화를 통해 진보적 지식인이 극단적인 현실논리 속에서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즉, <태백산맥>은 농민과 빨치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각 인물의 전형성을 통해 민중이 주도하는 변혁 운동을 이전의 어떤 작품보다도 탁월하게 반영해 내고 있다[35]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참고문헌》

권은미 (2011),「태백산맥에 형상된 미시사와 대중성」,『한국문학논총』59집, pp.323-351.
김복덕 (2006),『조정래 태백산맥 연구 : 인물과 삶의 양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석사논문.

35) 김복덕(2006),『조정래 태백산맥 연구 : 인물과 삶의 양상을 중심으로』, p.11.

조정래, 그는 누구인가

- 작가소개 및 작품세계

국어국문학과 20181102 조성빈

조정래는 1943년 전라남도 승주군 선암사에서 시조 시인인 아버지 조종현과 어머니 박성순의 4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주로 순천과 벌교에서 지내면서 여수·순천사건과 6·25 전쟁을 겪게 되는데, 이 경험은 훗날 조정래에게 있어 중요한 문학적 토양으로 작용하게 된다.[36] 그는 대하 장편소설『태백산맥』을 1983년에 집필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 완간하였다.[37]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그는 1970년《현대문학》에《누명(陋名)》과《선생님 기행》이 추천되어 문단에 데뷔한 뒤 1973년《월간문학》편집장, 1976년《소설문예》발행인으로 활동했다. 1978년에는 도서출판 민예사(民藝社)를 설립하여 1980년까지 대표로 활동했으며, 1985년부터 1989년까지《한국문학》주간을 지냈다.

조정래의 작품세계는《현대문학》에『태백산맥』을 연재하기 시작한 1983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을 전반기, 그 이후를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전반기의 작품에는 작가의 체험을 배제하고 사회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예를 들어 등단작인《누명》을 비롯하여 단편소설《거부반응》(1973)과《타이거 메이저》(1973)에서는 반미의식을 주제로 다루었고, 또 다른 단편《이런 식이더이다》(1972)《빙하기》(1974)《동맥(動脈)》(1974)《마술의 손》(1978) 등의 작품에서는 산업사회의 비인간적인 면과 비정함을 그렸다. 후반기의 대표적인 작품《아리랑》에서는 대하 역사소설로, 사실로서의 식민통치사와 일관된 사관에 바탕을 둔 상상력으로 빚어낸 허구적 사건들을 잘 배합해 놓았다. 분단의 현실을 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그의 작품들에는 한국사회에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계급적 갈등구조가 이데올로기[38]의 대립과정과 맞물려 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그가 파악하고 있는 한국전쟁과 분단은 민족의 삶을 왜곡시켜 온 사회구조의 모순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다시 왜곡되면서 해체되는 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영민(2004).『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36) 조정래가 파악하고 있는 한국전쟁과 분단은 민족의 삶을 왜곡시켜 온 사회구조의 모순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다시 왜곡되면서 해체되는 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분단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차원의 논의가 갖는 논리적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37)『태백산맥』은 분단극복의 의미를 적극화하기 위해서 민족사회의 내재적인 모순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38) 이데올로기(Ideologie) :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 ·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이다. '이념'으로 순화. ≒관념 형태.

눈에 담아보는 소설『태백산맥』

-소설『태백산맥』속 벌교와 태백산맥 문학관

국어국문학과 20181047 방은진

<태백산맥>의 배경인 벌교는 근대와 더불어 태동한 도시이며, 식민지 근대화의 한 전형성을 보여주는 땅이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39]에는 지명조차 나오지 않다가 19세기에 등장할 정도로 낙안이란 곳에 소속된 일개 포구에 불과했는데 식민지 시대에 급속히 개발되어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작품에서도 설명하고 있듯, 벌교는 보성군과 화순군을 포함한 내륙과 직결되는 포구이자 고흥반도와 순천 그리고 보성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이처럼 식민지자본주의화[40]의 한 전형적인 지역으로 벌교가 부각됨으로써 벌교에는 지주계급[41] 외에도 새로운 지배계급[42]이 나타났으며 도시화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 수준도 타지역보다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백산맥>에 나오는 많은 지식인, 상업자본가들과 같은 인물 배치와 그들의 높은 지적 의식에 의심을 갖지 않고 작품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43]

1) 헌부자네 집

"그 자리는 더 이를 데 없는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풍수를 전혀 모르는 눈으로 보더라도 그 땅은 참으로 희한하게 생긴 터였다."[44]

본래 박 씨 집안의 소유이며, 한옥을 기본 틀로 삼았으나 곳곳에 일본식을 가미한 색다른 양식의 건물로 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건물이다. 소설에서는 헌부자네 집으로 묘사되었다.

헌부자네 집은 소설 <태백산맥>의 첫 장면에서 등장하는 집이다. 조직의 밀명을 받은 정하섭이 활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새끼무당 소화의 집을 찾아가고, 이곳을 은신처로 사용하게 된다. 소화와 정하섭의 애틋한 사랑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

39)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人文地理書).
40) 식민지자본주의: 식민지자본주의란 기업가를 뒷받침할 주권국가가 없는 가운데 외래 식민권력의 무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식민지사회에서 전개되는 자본주의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
41) 지주계급(地主階級): 지주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
42) 상인 자본가계급(資本家階):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얻는 계급.
43) 임규찬(1999),「작품과 시간 - 조정래의 태백산맥론」,『문예미학』5권, pp.94-96.
44) 조정래(2007),『太白山脈1』, 해냄, p.14.

2) 소화의 집

"조그만 하고 예쁜 기와집. 방 셋에 부엌 하나인 집의 구조……부엌과 붙은 방은 안방이었고, 그 옆방은 신을 모시는 신당이었다. 부엌에서 꺾여 붙인 것은 헛간방이었다."[45]

소설 태백산맥에 나오는 무당 소화네 집의 모습이다. 소설의 배경 당시의 무당집은 실제로 제각으로 들어서는 울 안의 앞터에 있었다. 그런데 1988년 무렵 태풍에 집이 쓰러졌다. 토담의 일부와 장독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곳은 밭으로 변했다. 그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소화의 집은 아예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보성군에 의해 복원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소설 태백산맥은 소화의 집 신당에서 정참봉의 손자 정하섭과 무당 월녀의 딸 소화가 애틋한 사랑을 시작하는 것으로 길고도 아픈 이야기를 시작한다.

3) 소화다리(부용교)

"소화다리 아래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펀허니 널렸는디, 아이고메 인자 징허서 더 못 보겄구만이라….사람찍이는거 날이 날마동 보자니께 환장허겄구만요."[46]

1931년 6월에 건립된 철근 콘크리트 다리로써 원래 부용교(芙蓉橋)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였던 그때가 소화 6년이기도 해서 '소화다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다리는 여순사건을 시작으로 6·25까지, 우리 민족의 비극과 상처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47]

45) 조정래(2007), 『太白山脈1』, 해냄, p.17.
46) 조정래(2007), 『太白山脈1』, 해냄, p.66.
47) 6·25 당시, 양쪽에서 밀고 밀릴 때마다 이 다리 위에서 총살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4) 김범우의 집

"과분한 땅이라고? 이 사람아, 요 정도는 내가 지닌 땅 중에서 젤로 나쁜 것이네. 눈 봄은 우리 선대의 유산이 어련허겄는가. 맘 쓰지 말고 밭 일구도록 허게. 허허허……"[48]

본래 대지주였던 김 씨 집안 소유의 집이며, 소설에서는 품격 있는 대지주 김사용의 집으로 등장했다. 사랑채, 겹안채, 창고자리, 장독대, 돌담 등 그 모든 형태와 규모들이 대지주의 생활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5) 벌교남초등학교(벌교초등학교)

소설 <태백산맥>에서 벌교남국민학교는 손승호와 이지숙이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일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운동장에서 대중 집회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다. 6·25 발발에 따라 벌교를 장악하게 된 염상진이 대중연설을 하고 인민재판을 열기도 하며, 심재모-백남식-양효석으로 계엄사령관이 바뀔 때마다 열병식을 가졌던 곳이기도 하다.

6) 구 벌교금융조합

"금융조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돈 장사이고 보면 그의 이재(理財)솜씨는 멋 부리는 것 보다 한 수가 더 앞질러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49]

벌교금융조합은 지금도 변함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그 위치 또한 번화가의 첫머리인 삼거리에 자리 잡아 고객들의 편리를 최대로 도모한 세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는 송기묵이 일제강점기부터 금융조합에서 근무한 곳으로 등장한다.

이 외에도 보성 벌교에서 소설 <태백산맥>에서 배경으로 묘사된 홍교, 철다리, 구 보성여관[50], 회정리교회, 중도방죽, 진트재(터널), 회정리3구, 벌교상고, 선창과 창고, 경찰서, 장터거리, 벌교역, 차부, 남원장, 술도가, 광주상회, 북초등학교, 용연사, 벌교공원, 청년단 건물, 자애병원, 돌몰(평촌), 석거리재, 주릿재 고개[51]를 찾아볼 수 있다.

---

48) 조정래(2007), 『太白山脈1』, 해냄, p.141.
49) 조정래(2007), 『太白山脈1』, 해냄, p.284.
50) 구 보성여관은 소설 『태백산맥』에서는 '남도여관'으로 등장했다.
51) 주릿재는 벌교읍 추동리 내추마을 서쪽에서 존제산을 넘어 율어면 유신리에 이어지는 고개이다.
또, 소설 『태백산맥』에서의 주릿재는 제2부가 시작되는 무대이기도 하다.

7) 태백산맥 문학관

태백산맥 문학관은 소설 <태백산맥>의 첫 시작 장면인 현부잣집과 소화의 집이 있는 제석산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문학관은 소설 태백산맥이 땅속에 묻혀 있던 역사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산자락을 파내서 특이하게 설계된 건물로 세워졌다.

문학관의 전시내용에는 소설을 위한 준비와 집필, 소설 태백산맥의 탈고, 소설 태백산맥 출간 이후, 작가의 삶과 문학 “소설 태백산맥”이 있다.

《참고문헌》

임규찬(1999),「작품과 시간 - 조정래의 태백산맥론」,『문예미학』5권, pp.87-104.
조정래(2007),『太白山脈1』, 해냄.

항일민족 시인 김영랑

- 김영랑의 생애와 업적,「모란이 피기까지는」내용 설명

인문학부 20191018 김서연

1930년대 순수시를 대표하는 시인 김영랑은 1903년 전남 강진 출생으로 본명은 윤식, 아호는 영랑이다. 강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휘문고를 나와, 1920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아오야마 학원 영문학과에서 수학했다. 1916년에 소년 영랑은 부친의 뜻에 따라 강진면 도원리 출신 김은하와 결혼하였으나 다음 해에 사별하고 만다.

우리 민족의 정한을 노래한 시인으로 알려진 영랑의 시 세계는 동양적 은일의 시관과 한시, 특히 고산 윤선도의 시조 등에서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자연에 대한 음풍농월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면서 동시에 순수하고 깨끗한 자연 앞에서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일제 치하의 억압적 식민지 현실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자연에 자신의 감정을 맑게 투영한 탁월한 서정시를 쓴 이 시인은 추상적 관념을 거부하고 자연물에 대한 순정한 심정을 투사함으로써, 고용한 내면을 지순한 언어로 표상한 점이 특징이다. 영랑의 시는 가냘프면서도 질기고 화사하면서도 애수에 차 있는 순수한 탐미주의적 서정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시가 아니고 그 정서를 여과/순화한 순수시로, 시상이 곱고 아름다우며 섬세한 어조로 시의 순수 예술성에 접근해 있다. [52]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53]

시「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우리 현대 시문학사의 명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어 오고 있는 작품이다. 제1행에서는 모란꽃이 피기까지라는 객관적 상황을 제시하고 제2행에는 기다림이라는 화자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제3행에서는 모란꽃이 떨어져 버린 날이라는 객관적 상황이 드러나 있고 제4행에서는 그때 화자가 느끼게 될 서러움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제5~7행까지가 자연 현상을 이야기했다면 제8행에는 화자의 절망감이 표현되어 있다. 제9행은

52) 박노균(2000),「김영랑의 생애와 문학」,『개신어문연구』17호, pp.431-452.
53) 김영랑(2017),『모란이 피기까지는』, 디자인이음, p.136.

모란꽃이 지고 말면 자신의 한 해는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10행에서 내내 울고 있는 화자의 참담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모란꽃이 다시 피는 상황을 그리면서 그 찬란한 순간을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이 강조되고 있다.[54]

54) 박노균(2001),「김영랑의 시작품 분석」,『개신어문연구』18호, pp.225-248.

김영랑 시인이 살아온 시간

-김영랑의 작품의 시대적 배경

국어국문학과 20181095 정경원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3•1운동의 좌절과 연관이 있다. 당시 일제 강점기 하에서 조선인의 행동능력이 제한되었고,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듯이 독립국과 자주민을 요구하는 근대적 지식이 가득 찼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3•1운동은 처참히 좌절했다. 조선인들은 한반도 내에서의 행동의 불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모더니티'의 자연스러운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때부터 한반도의 지식인들은 다른 생각을 품었다. 자신들의 이상향에 대한 상상이 바탕이 된 모습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좌절을 회복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바로 조선심, 조선적인 것,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과정과 끊임없는 갈망을 꿈꾸게 된 것이다.

한국의 근대시는 불가능성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대답을 하면서 형성된다. 초기 시인들은 시에서 '시간의식'의 부재를 이용해 긴장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최고도로 만들어냈다. 다음 세대인 김영랑은 거기에 시간의식의 부재를 뛰어넘어 그곳에 시간을 넣은 방법을 사용했다. 즉 불가능성이 지속되는 시간에 '기다림'의 자세를 집어넣어 우리의 이상이 실행될 것에 대한 힘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이 실행될 때, '임'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 기다림의 자세를 갈고 닦았다. 그럼으로써 일제에 굴하지도 않게 되었고 허망한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현실을 견디어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덕을 쌓으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학'이 이때 만들어진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단순히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염원의 표현이 아니다. 그렇게 읽을 경우 이 시는 다시 조국을 빼앗기기를 기대하는 이야기를 담게 되기 때문이다. 되찾으려 하지 않아도 모란은 다시 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작품에서의 간절함은 내가 내 보람을 가장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 기운을 낼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설령 실패로 끝날지라도 나는 매일 모란이 피기를, 즉 그럴 기회가 오리를 기다리리라. 모란이 필 때, 완성의 경지에 달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다. 완성을 향한 운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의는 이 시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된 이유를 알려준다. 시간이 지나도록 의미 있는 시로 남겨질만한 힘을 이 시의 모호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시학', '완성을 향한 운동의 개시'와 같은 것들은 훗날 한국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이루게 된다.

《참고문헌》

정명교(2017), 『한국적 서정시를 태동시킨 김영랑의 시와 박용철의 시론』. 다산과 현대.

정약용의 시선을 담은 책

- 『목민심서』와 『흠흠신서』의 작품설명

인문학부 20191015 김병규

첫 번째로 『목민심서』는 다산의 유배지(流配地)인 전라도 강진읍(康津邑) 근처의 다산 서옥에서 그의 나이 57세 때인 순조 18년(1818)에 완성되었다. 지방 행정 책임자인 수령(守令)의 치민(治民) 방법을 논한 이 책은, 애민사상(愛民思想)과 준법정신(遵法精神)을 기본으로 하는 그의 사상과 학문의 결정체이며 근세 실학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목민심서』는 그의 다양한 저술 가운데 가장 큰 관심과 호응을 받은 책으로 유학자의 이상과 포부, 현실의식을 담은 목민관의 지침서이다. 이 저술에는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지방 수령(목민관)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구성원들이 등장한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재물욕과 권력욕을 가진 평범한 인간 군상의 갈등과 대립, 공모관계 및 권력 견제를 위한 상호 감시와 염탐 현장을 생동감 있게 포착했다.

유학자 관료였던 정약용은 지방 운영에서 정치적 권위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보았고 권위에 근거하지 않은 목민관의 권력은 일반 백성의 탐욕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청렴함, 절제력에 기반을 둔 지방 관리의 도덕과 인품을 중요한 권위의 근거로 내세웠다. 관직, 나이, 인품(도덕성)은 유교 사회에서 중요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우대 기준이었다.

다산은 유학자로서 도덕성을 정치적 권위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지만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수령을 권위의 주체로 간주한 것과 달리 하급 관리, 선비와 소민을 수령과 대등한 주체로 보지 않고, 교육하고 계몽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목민심서』는 목민관의 자기 수양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다산이 경험한 지방 정치의 현장을 핍진하게 그려내는 글쓰기 방식은 『목민심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당위적 내용을 친밀하고 설득적인 화법으로 서술하여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수령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마치 수령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흠흠신서』는 정약용이 저술한 형법서로 30권 10책. 508권의 정약용 저서 가운데 『경세유표(經世遺表)』·『목민심서』와 함께 1표(表) 2서(書)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 저서이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판례집이자 형법학과 수사학 지침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종합적인 법률 서적이다. 다산은 이 서적을 자신의 해배 전후한 시기에 최종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1817년의 『경세유표』 1818년의 『목민심서』에 이어 1819년에 『흠흠신서』가 마무리되었다.

『흠흠신서』는 한마디로 <살인사건에 관한 판례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자, 법학서로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흠흠신서』는 무엇보다도 당대 사대부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법률과 재판에 주목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저술에는 중국과 한국의 살인, 자살 등 인명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 관련 기록이 다수 실려 있는데 단순히 관련 공문서의 내용을 편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재판에 대한 편찬자 다산의 주석과 비평을 덧붙이고 있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산은 당시의 처참한 사회상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그는 애민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당시의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제도 개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시책을 내놓았다. 다산은 『흠흠신서』를 통하여 목민관들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도와 법률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유교 형벌의 기본 이념과 판례 사례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저서를 통하여 유교의 형벌 사상 및 오늘날 형벌 집행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산은 관리의 법 집행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목민심서』를 기술하고 있으나 형벌에 대해서는 따로 『흠흠신서』를 집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하고 있다. 법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특히 형벌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뺏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형사벌의 집행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시하여 집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구성
[상형추의] 15권 : 정조가 심리했던 살인사건 중 144건을 골라 분석한 것
[경사요의] 3권 : 사건 판결을 위한 이념과 규정을 서술한 것
[비상전초] 5권 : 사건 보고서 작성 방법을 서술한 것
[의율차례] 4권 : 살인사건의 유형과 형량 제시
[전발무사] 3권 : 정약용이 직접 수사한 사건 기록한 것
이렇게 총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350여 건의 수많은 사례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강혜종(2014),「목민심서(牧民心書)의 글쓰기 방식과 공공성(公共性)」,『다산학』28권, pp.143-174.
박홍규(2001),「정약용 흠흠신서의 현대적 의의」,『대한출판문화협회』266권, pp.9-125.
이정섭(1993),『교양 목민심서』, 민문고.

정약용이 말하는 목민관의 지침과 판결방법

-『목민심서』와『흠흠신서』의 문학사적 의의

인문학부 20191072 이예진

『목민심서』는 민본사상과 민주 사상에 근본을 두어 백성들이 국가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산은 목민심서의 저술 목적을 궁핍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보살피고 이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목민관의 자세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의의 중요성과 민의 수렴 방법들을 제시하며 살펴보고 있다.

다산은 수령이 민의를 수렴하는 데 있어서 수령 스스로의 노력, 즉 수신(修身)[55]을 강조하였다. 또한 목민관이 아랫사람들이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수신(修身)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목민관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스스로가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돌보는 마음자세와 행동을 항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다산은 항시 백성을 생각하고 이들을 위하고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산은 수령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지켜야 할 도리를 여러 덕목으로 나누어 강조하였으며 사회의 부패와 개혁할 것을 제시하였다. 수령된 자의 품성이나 도덕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거의 전편에 걸쳐서 수령의 청렴성과 근면성을 일깨우고 율기[56], 봉공[57], 애민의 3기는 표제에서부터 이미 도덕적 방향성이 전제되어 있다. 다산의 학문체계에서 '정법 3서'의 하나로 저술된 목민심서는 그 당시 말기적 부패와 무능력, 심각한 상태에 다다른 수취와 횡포로 인해 생존적 위기에 처한 민을 구제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이 처한 현실,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과 그 역사적 배경인 왕정체제의 중심에서 구조적인 모순의 실태를 예리하고 총체적인 시각을 잃지 않게 고찰, 분석하였으며 행정업무의 관행적인 부정비리까지 파헤쳤다.

『목민심서』가 오늘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이유는 내용의 뛰어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산의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치열한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민관의 자세를 강조하며 애민정신을 바탕으로『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고 할 수 있다.

『흠흠신서』는 형옥에 관한 법정서로, 다산은 목민관들이 구체적인 사건에 직면할 때 제도와 법률을 입법 취지에 잘 맞게 적용하고 집행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형벌의 기본 이념과 더불어 판례 비평 사례집인『흠흠신서』를 편찬하였다. 중국과 조선의 살인사건 재판에 대한 원칙과 사건 처리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법률 적용 방법을 소개한 우리나라 최초 판례연구로써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산은 판결을 할 때 법을 지키는 동시에 입법 취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판결 시,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시의적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시중'이 중요한데, 중용을 잃은 채 너무 엄하거나 가볍게 처벌한 중국의 판례를 비판하였다. 원칙만을 고집하다 자칫 엄하게 혹은 가볍게 처벌하거나 반대로 유연한 해석을 강조하다 원칙을 해치거나 법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 그 자체와 더불어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사건에 합당한 법조문을 찾아내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55) 수신(修身) : 악을 물리치고 선을 북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함.
56) 율기(律紀) : 도덕상으로 여러 사람에게 행위의 표준이 될 만한 질서.
57) 봉공(奉公) : 나라나 사회를 위하여 힘써 일함.

정조 사추 세태 돌변 후 형벌의 중요성이 사라지며 세상에 억울한 옥사가 많아지고 이에 다산은 퇴락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자 중국과 조선의 법전들과 각종 옥안을 모으고 정리한 후 자신의 견해를 붙여 살인사건을 조사할 지방관들을 위해 한 권의 참고서를 만들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였다. 다산은 인명에 관한 일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에서 『흠흠신서(欽欽新書)』라고 명명하였다.

오늘날 잘못된 판결과 기소에 대해 판검사가 책임지는 부분은 없다.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와 재심 청구 등 모두가 피해자의 몫이기에 우리는 무죄 추정 원칙을 두어 공권력의 행사에 주의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정약용의 『흠흠신서』는 판결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며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공권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하고 여러 재판의 사례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현재 판결 시 보아야 할 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과거의 사례로부터 이어진 교훈과 지침에 대해 알려주는 『흠흠신서』는 현재 우리가 더욱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판결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이것을 이 책의 문학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홍(2007), 『다산의 꿈, 목민심서』, 새문사.
김호(2013),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책문.
심재우(2018),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 법학자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 산처럼.
이정섭(1993), 『교양 목민심서』, 민문고.
이지영(2002), 『하룻밤에 읽는 목민심서』, 책향기.
장승희(2005), 『목민심서 - 마음으로 읽는 다산 정신』, 풀빛.

정약용의 학문에 대한 열정

- 정약용의 생애와 업적

인문학부 20191054 석영준

정약용은 18세기 최고의 실학자로 호는 일반적으로는 다산이라고 불리고 열수, 사암, 탁옹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약용 본인은 사암이라는 호를 가장 선호했다고 한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1762년 6월 16일 사시(9시~11시)에 현재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아버지 정재원(丁載遠)과 어머니 해남윤씨(海南尹氏)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4살 때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7살에는 오언시[58]를 짓기 시작했다. 15살 때는 풍산 홍씨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리고 22세에 증광감시[59]에서 생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학문이 매우 뛰어나 정조의 신임을 받았다. 31세일 때에는 진주목사로 부임 중이던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관직에 사퇴하여 마현에서 시묘[60]를 하였다. 이때 임금인 정조의 명에 의해 도르래의 원리를 적용한 거중기를 설계해 수원 화성 건축에 큰 보탬이 되었다. 시묘를 마치고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연천, 삭녕 등 마을의 탐관오리들을 단죄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탐관오리를 단죄하는 과정에서 서용보에게 미움을 산 정약용은 목숨의 위협이 당했고 평생을 악연으로 지내게 된다.

그러다 그의 관직 생활은 국왕 정조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순조가 즉위하자 노론들의 음모로 인해 정약용은 강진에 있는 만덕산 중턱에 위치한 다산초당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18년의 유배 기간 중 11년 동안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5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편찬했다. 그중에는 우리가 적어도 한 번씩은 들어본 책들인, 지방관을 비롯한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 및 몸가짐에 대해 기록한 행정지침서인 『목민심서』와 국정에 관한 일체의 제도 법규의 개혁을 논한 책인 『경세유표』, 조선 시대의 형법을 다룬 책인 『흠흠신서』등이 있다.

이 중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10개의 명언을 남겼다. 첫 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두 번째 스스로 직위를 구하지 마라, 세 번째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다, 네 번째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라, 다섯 번째 궂은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여섯 번째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엄과 신용뿐이다. 일곱 번째 실제적인 배움을 중시하라, 여덟 번째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하라, 아홉 번째 세력자의 횡포를 막아라, 열 번째 청렴하게 물러나라. 이 말들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명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강진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유배되어 머문 곳으로 후진 양성과 실학을 집대성한 성지로써 현재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이태순의 상

58) 오언시: 한 구가 다섯 글자로 된 한시를 통틀어 이르는 말.
59) 증광감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념으로 생원, 진사를 뽑는 과거시험.
60) 시묘: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그 무덤 옆에 막을 짓고 생활하는 일.

소로 인해 18년의 긴 유배생활을 마치고 58세의 나이에 정약용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서용보와의 악연으로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조선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정약용은 75세의 나이에 고향인 마현에서 1836년 2월 22일 진시(7시~9시)에 세상을 떠났다.

다산은 '다산초당'에 정착한 후 유배지에서 좌절하지 않고 후학들을 양성하였으며 백성들의 고통 받는 삶을 목도하면서 현실 개혁의 구상을 마련하였다. 후대에 그가 조선 실학의 집대성자로 불리게 된 것도 척박한 유배지에서 자신에 대한 채찍질에 힘을 쏟으며 집필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그의 저작들은 대부분 유배지 강진에 이룩한 것이다. 다산에게 있어 유배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그저 빛나는 성취의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의 학문을 향한 굽힘 없는 열정, 국가 개혁을 위한 진지한 성찰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참고문헌》

정규영(2014), 『다산의 한 평생』, 창비.

정약용의 특별한 유배지, '다산초당'

- 유적지 '다산초당'

국어국문학과 20181108 최예원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신유박해(辛酉迫害) 당시 황사영 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에 연루되어 18년간의 유배생활을 치르던 중 11년간을 강진에서 보낼 때 머무르던 공간이다. 정약용의 유배생활 초기에는 매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글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 마을 사람들에게 학자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다산초당은 본래 윤취서, 윤유서 형제가 마을 뒷산에 건물을 짓고 차나무와 대나무 등을 심어 가꾼 공간으로, 도암면 귤동(橘洞) 마을의 만덕산 중턱에 자리 잡아 강진만을 한눈에 굽어보는 이 초당은 윤씨 마을의 대표적인 선비인 귤림처사(橘林處士) 윤단(尹慱)이 세운 산간정자였다. 초당에 많은 장서를 비치해 두고 독서하며 손자들을 가르치며 한가한 세월을 보내는 해남 윤씨들의 강학공간으로 활동하였던 곳이다. 정약용은 만덕사라고 부르는 절을 출입하다 귤동이라는 마을에 있는 정자를 찾아 그곳에서 학문을 연구 하였으며, 윤취서의 손자인 윤단 때에 그의 아들들의 배려로 정약용이 이 초당에 머물게 되었다(1808-1818년). 이 때부터 이 공간을 다산초당이라 명명하였으며 그는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학문탐구와 저술활동을 하며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흠흠신서』를 비롯한 500여권에 달하는 많은 저서를 남기며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다산초당의 공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주변에는 대나무와 동백나무, 삼나무 등 각종 수목이 우거져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천일각 쪽에서는 강진만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등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건물로는 다산초당, 동암, 서암, 천일각이 있으며, 그 밖의 외부공간요소로는 차를 끓이는 부뚜막으로 이용된 다조(茶竈), 찻물을 이용하기 위해 만든 약천(藥泉), 방지원도형(方池圓島形)의 연지석가산[61]이 있다. 주요 수목으로는 동백나무, 차나무, 적송, 이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수령이 오래된 팽나무, 단풍나무 등도 식재되어 있다.

지금의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살아갔던 초당이 아니다. 정약용이 고향으로 해배된 뒤 상당기간은 제자들의 노력으로 유지되었으나, 오래되지 않아 거처할 사람도 없고 유지 관리가 어려워 끝내는 터만 남고 집은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현재의 다산초동은 1950년대에 초옥을 와옥으로 복원하였으며, 1980년대 와서야 동암과 서암을 복원하여 모두 기와집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정약용의 활동범위의 확대는 거처를 옮겨 다닌 것 외에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그가 유배당했음에도 다산초당 일대를 그의 의지대로 조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학문이 다산초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이 공간에 대한 의의는 남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시(時), 서(書), 화(畵)가 유자들에게 인격을 수양하는 직접적인 도구로 이용되었다면, 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바탕으로 제공되었던 것이다. 정약용에게 다산초당이

61) 연못 가운데 조그만 산처럼 쌓아놓은 석가산.

란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작지에서부터 취미와 감상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신세계를 성숙시켜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茶山八景詞[다산팔경사]　茶山 丁若鏞[다산 정약용]

響牆疏豁界山腰 : 산 중턱 지경까진 널따랗게 탁 트인 메아리 담장
春色依然畫筆描 : 붓으로 그린 듯 봄빛이 그대로네
愛殺一谿新雨後 : 봄비가 내린 뒤라 산골짜기 더욱 사랑스럽고
小桃紅出數枝嬌 : 산복숭아 몇 가지엔 붉은 꽃이 예쁘다

-拂墻小桃[불장소도] : 담장을 덮은 작은 복숭아

《참고문헌》
정동오(2012), 「다산과 강진 : 한국 전통정원의 공간구성과 다산 정약용 - 다산초당과 조석루기(朝夕樓記)를 중심으로」, 『다산과 현대』 5권, pp.363-377.

이청준의 한(恨)의 문학

-이청준의 서편제와 선학동 나그네-

인문학부 20191049 박유진

이청준은 1965년 <사상계>에 단편「퇴원」으로 등단하여 4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작가이다.「당신들의 천국」,「눈길」,「소문의 벽」,「서편제」 그리고 「선학동 나그네」등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남겼다. 이중 「서편제」와 「선학동 나그네」는 이청준의 연작 소설『남도 사람들』에 나오는 소설이다.

두 작품은 작가의 고향인 장흥 땅 둘레를 중심으로, 특히 선학동 나그네는 이청준이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를 그려냈으며, 남도창을 제재로 삼아, 소리를 다루는 작가의 세계를 잘 보여 준다. 등장인물들은 비정상적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로서, 오직 소리 하나에 신명을 바치며 떠돌이로 일생을 살아온 아버지와 눈이 먼 딸, 그리고 누이를 두고 온 것이 한이 된 오라비 등 한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엮어 놓았다.

「서편제」의 줄거리는, 전라도 보성읍 밖에 소릿재 주막의 주인은 남도소리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소리꾼 여인이 있고, 어느 날 이 주막에 북장단을 치는 사내가 소릿재 여인 이야기를 듣고 손님으로 찾아든다. 사내는 여인에게서 주막에 얽힌 소리꾼 부녀이야기를 듣는다. 소리하다 죽은 소리꾼 부녀로부터 연유하였으며, 그 소리꾼은 어린 딸 하나와 떠돌아다니다 이곳 소릿재의 빈집에 들어 소리를 하다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혼자 남은 그 딸의 처지를 가엾게 여긴 읍내의 대갓댁에서 거처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기를 권유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묘가 있는 그곳에 남아 소리를 계속하였다고 했다. 주모는 대갓집에 들어오지 않은 딸을 돌보도록 보낸 심부름꾼이며, 주막을 열어 돌보고 같이 소리를 익히었다. 사내는 소리꾼의 의붓아들로 의붓아비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여, 살의를 품어오다 들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고, 주막 여인으로부터 의붓아버지가 소리의 기를 성대에 모으기 위해, 그리고 딸에게 한을 쌓이게 하기 위해 의붓동생의 눈에 청강수를 부어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말까지 듣는다. 사내는 그러나, 딸 역시 아비 곁을 떠날까 두려워하여 딸의 눈을 빼앗았을 것이라 추정한다. 딸은 아버지의 3년 상이 끝나자 주막을 떠났다는 것을 들었다. 주막집 여인은 사내에게서 소리꾼의 의붓아들임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끝이 난다.

소리를 전수하려고, 득음(得音)의 신념을 위해, 딸의 눈까지 멀게 하여 한을 쌓아서 우리의 것을 지니려는 소리꾼아버지의 태도로 전통예술에 있어 한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딸의 눈을 멀게 하여 끝내 득음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정신을 보이고 있다. 삶의 가치란 물질적인 충족을 누리는 데서 찾기보다 예술을 위해, 자신의 이상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서 찾는 것으로서, 그것을 한을 초월하여 집념을 승화시킨 고귀한 예술인의 정신을 통하여 보여 주고 있다.

「선학동나그네」의 줄거리는, 나그네가 만조 때 비상학의 자태를 짓는 선학동을 보러 발길을 재촉하였으나, 포구는 들판이 되어 학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주막으로 간 나그네가 학이 못 나는 것을 아쉬워하자 주막집사내가 몇 년 전 한 영인이 다녀간 이후 학이 다시 날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30년 전 소리꾼부녀가 찾아와 아비가 땅의 소리에 뒷산 관음봉포구의 밀물에 비상학으로 떠오르는 선학동 포구의 풍경을 심어주고 마을을 떠났다가 이태전 여자가 아비의 유골을 묻기 위해 이곳에 왔었으며, 인심이 각박한 선학동 주민들을 소리로 감동시키고, 유난히 공들여 소리를 하고 주막집사내의 도움으로 유골을 묻었다. 나그네가 여자가 장님이었냐고

묻고는 자신이 여자와 연이 있다고 말하자, 주인은 여자가 학을 날게 한 사연을 이야기한다. 여자가 포구에 물이 들어오는 고리, 그뭉에 비쳐 선학이 나는 것을 듣고 봄, 남자 또한 비상학의 환상을 보고 여자가 학이 되어 하늘을 떠돈다고 믿게 된다. 여자는 주인사내에게 오라비에게 자길 찾지 말라는 부탁을 하였고, 나그네는 더이상 누이를 찾지 않기로 한다. 고갯마루 위에 언제부터인가 백학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는 문장과 함께 끝이 난다.
여인이 학이 되어 날아감으로 여인의 한이 승화되며, 타인에게까지 전달되고, *'사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았을 때, 길손의 모습이 사라지고 푸르름만 무심히 비껴 흐르고 있는 고갯마루 위로 언제부턴가 백학 한 마리가 문득 날개를 펴고 솟아올라 빈 하늘을 하염없이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62]라는 마무리로 인간의 한과 그 한이 자연을 통해 수용되는 묘사와 함께 인물의 삶이 떠돌이 삶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참고 문헌

이청준(1993), 『서편제』, 열림원.
김현(1980), 『문학과 유토피아 : 공감의 비평 : 평론집』, 지성사.
김현희(1997), 『이청준 소설의 시간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pp.97-101.

62) 이청춘(1993), 『서편제』, 열림원, p.85.

왜 글을 쓰는가, 이청준의 삶과 세계

- 이청준 작가의 시대상과 작품세계, 문학사적의의에 대하여 / 이청준 생가 소개

인문학부 20191070 이소현

이청준 작가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60년 후반은 역사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급변기로, 지식인에겐 그 계급성과 관계없이 시대적 의무가 요구되고 근대적 자아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하는 시기였다.[63] 그는 한국 현대 소설사에서 사회적인 모순 현상들을 진지하게 탐구한 작가로서 지성 소설의 계보를 열어간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작가로서의 이청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폭넓은 작품세계로써 다양하게 반응했다고 할 수 있다.[64]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장인의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세계, 도시 지식인의 내면세계, 전기적 요소를 지닌 인물의 초월적 세계, 소설가의 창작 태도 등이 드러나 있다.

이청준 작가의 작품세계에서는 그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소설의 제재를 이룬다고 할 만큼 소재, 주제, 인물에 있어 다양함을 보여준다.[65] 그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작가의 작품세계를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눈다. 도시적이고 지적인 소설들과 토착적이고 서정적인 소설들이 그것인데, 이 두 경향은 서로 아주 극단적이고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66]

1970년대의 한국 소설은 삶의 공동 주체로서 '민중'이 지닌 가치와 힘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 이청준은 1970년대의 억압된 정치 상황 속에서 작품을 통해 현실적 상황에 맞서서 이를 단순한 '문제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극복을 위한 싸움'의 차원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리하여 고립된 개인의 무력감과 패배 의식을 극복, 공동체적 인식의 기초 위에서 새롭게 세상을 응대하는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67] 이청준의 작품에는 '소설이란 무엇인가,' 또는 '왜 쓰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관심의 단초가 드러난다. 이 주제는 그 뒤 「소문의 벽」(1971), 「조율사」(1973), 「지배와 해방」(1977) 등 작품을 통해 집요하게 이어지다가 「다시 태어나는 말」(1981)에서 용서와 화해라는 보다 확대된 긍정의 단계에 도달한다. 이 계열의 소설이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던 것은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며, 특히 이 계열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광기는 자유로운 자기 진술이 봉쇄된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자기방어 행위라 할 수 있다.[68]

이청준 작가는 출생부터 중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진목마을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전후하여 집까지 남에게 넘어가고 가족이 흩어진 바람에 20년 가까이 고향 마을을 찾지 못하다가, 1979년 동네에 새 가옥을 마련하고, 그동안 인근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던 남은 가족들

63) 송수경(2012), 『이청준 소설의 신화성 연구』, 세종대 대학원, p.3.
64) 정정현(2007), 『이청준 단편소설의 상징 연구』, 목포대교육대학원, p.3.
65) 김현(1992),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p.245.
66) 정정현, 앞의 논문, p.3.
67) 김종회(2016), 『세계문학으로서의 이청준 문학』, 한국현대문학회, p.457.
68) 김종회, 앞의 논문, p.459.

이 다시 진목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소설「서편제」,「소리의 빛」,「선학동 나그네」 등은 그의 고향 나들이 길이 현장 배경을 이룬 작품이며 특히 그의 <눈길>은 팔려버린 그의 생가에서 어머니와 마지막 하룻밤을 보낸 정황과 모처럼 양하리 임시 거처의 어머니를 찾은 사연을 소재로 삼아 쓴 단편소설이다. 이 밖에도 이청준 작가의 다수 작품에서 이 마을 안팎 풍경과 일화가 소설의 무대나 소재로 나온다.

역마와 화개

- 역마의 줄거리와 작품세계

인문학부 20191017 김 산

김동리 작가의 역마에서 알 수 있는 작품세계로는 화개의 실제 배경을 모티브로 하여 이야기를 썼다는 것이다. 일단 작품 초반에 화개장터의 모습을 직접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동, 구례, 쌍계사와 구례 쪽에서 흐르는 냇물, 경상도 쪽 화개협, 섬진강 본류와 같이 구체적인 지명과 하천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화개장터에서 판매하는 상품인 더덕, 실, 자반 고등어 등 화개장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사실성을 높였다. 그리고 화개장터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을 모티브로 하여 등장인물을 설정하였다. 김동리가 화개장터에 갈 때 자주 가던 술집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기생 두 명이 있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무당이었고, 어머니가 신분을 숨기고 딸들을 키우기 위해 기생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딸들이 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자 무당일을 하지 못하게 가두고 어머니는 목을 메고 자살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자 자매는 하동으로 갔다가 다시 화개로 돌아온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역마를 창작하게 되었다.

역마는 옥화, 성기, 계연, 체 장수가 주요 등장인물이다. 옥화는 성기의 어머니이며 그녀의 어머니는 하룻밤 놀다가는 남사당의 사내에게 첫눈에 반해 하룻밤을 보내고 그녀를 가지게 되었고 그녀 역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남자와 눈이 맞아 성기를 가지게 되었다. 성기는 세 살 때 점을 봤을 때 사주에 역마살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중질을 시켜보면서 살을 풀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살을 푸는 것을 실패하고 만다. 이렇게 옥화는 성기와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며 화개에서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체 장수가 자신의 딸 계연을 데리고 옥화의 주막으로 오게 된다. 체 장수도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이었다. 성기는 애초에 여자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계연에게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옥화도 내심 성기가 계연과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기는 계연과 나물을 따러 가게 되고 그곳에서 나물을 따다가 입맞춤을 하면서 감정을 쌓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갑자기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들렸다. 체 장수가 계연을 데리고 고향인 여수로 떠난다는 것이었다. 성기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울음을 참고 주저앉고 만다. 울면서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계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계연이 떠난 이후로 옥화에게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체 장수가 36년 전 낳은 딸이 옥화였고 계연과 옥화는 배다른 자매 관계였던 것이었다. 옥화의 왼쪽 귓바퀴에 사마귀가 있는데 계연의 왼쪽 귓바퀴에도 사마귀가 있던 것이 서로 자매였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 결국, 성기는 애당초에 계연과 이어질 수 없던 사이었던 것이었다. 한 달 후 기운을 차리고 일어난 성기가 역마살인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고 엿판을 들고 하동으로 향하는 모습을 끝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작품 초반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딸들의 어머니인 무당이 자살한 것을 묘사한다. 그리고 두 딸은 각각 옥화와 계연을 묘사했다. 또, 샤머니즘적 요소와 운명론에 기반하여 글을 썼다. 역마에서는 할머니가 성기의 괘를 보러 여러 곳을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술적인 요소를 잘 신뢰하는 우리나라의 과거 사회를 표현했다. 실제로 김동리도 당사주 등과 같은 여러 운명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그의 형이 음양오행사상의 대가였다고 한다. 또 극 중에서 성기가 계연을 좋아했지만 계연이 떠난다는 것과 옥화와 배다른 자매라는 사실에서 어떻게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 성기가 중질을 하면서 역마살

을 풀어내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 운명론적인 모습들이 표현되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역마라는 작품은 샤머니즘과 운명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김찬호(2006), 『김동리 소설의 사상적 배경연구 : 「화랑의 후예」「등신불」「역마」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전문대학원.
박맹호 (1995), 『역마 밀다원 시대』, 민음사.

김동리가 걸어온 길

-생애와 문학사적 의의

인문학부 20191052 박준현

1913.11.24	경주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남
1929	학교를 중퇴하고 문학세계에 발을 들임
1936	단편소설「무녀도」발표
1939	단편소설「황토기」발표
1961	단편소설「등신불」발표

김동리는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소재를 완전한 현대적 미학으로 받아들여 민족 문학의 전통을 확립하고 확대시킨 작가이다. 대부분 그의 작품의 배경과 무대는 도시가 아닌 오지이며 작중 인물들은 인구 밀집 사회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시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민족 문학의 개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의 작품이 원시적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한 다른 어느 작가의 작품 못지않게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게 만들었는데 그의 작품의 소재가 원시적인 것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원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작품이 사회 문제를 전혀 취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의 데뷔작인「화랑의 후예」와「밀다원 시대」, 그리고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등신불」과 같은 작품 등은 사회성과 역사의식이 짙은 작품이다.

김동리는 민족적이고 토속적인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가 이런 소재를 찾아 작품을 쓰게 된 것은 당시 일제의 압박 속에서 얼어붙은 민족의 혼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그는 민족의 고유한 것과 전통적인 것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토속적인 풍습과 신화, 그리고 종교 이전의 민족 정신의 토속신앙인 샤머니즘[69]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김동리가「무녀도」와「황토기」라는 작품을 쓸 때 우리 민족은 직접적인 고발 문학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동리는 당시의 문학의 흐름이 신화적이고 상징주의적[70]인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자신도 상징주의적인 작품들을 썼다. 그가 그러한 작품을 써야만 했던 것에는 민족의 혼을 불러일으키는 데 상징주의가 적절한 수단인 탓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표출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김동리는 청년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가 약소국에 대한 인권 유린과 착취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를 파괴한 후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일본의 이기적인 제국주의를 비인간적인 행위로 보았다. 김동리는 착취를 당하는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작가로서 정의의 입장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침략 행위를 슬퍼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했다.

해방 후 김동리가 쓴 소설「역마」는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사랑과 운명에 대한 문제를 밀도 있게 그림으로써 인간의 운명과 생의 본질적 탐구에 주력하였다.「역마」의 주인공 성기는 태어날 때부터 역마살[71]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역마살을 풀어

69) 접신의 능력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샤먼(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종교현상을 가리키는 말.
70) 낭만주의와 같이 현실을 넘어선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경향으로, 상징주의는 이와 달리 직접적이지 않고 상징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기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의 삶은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이미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단단한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다. 운명에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순응함으로써 인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작가의 운명론적 문학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역마」는 역마살로 대변되는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을 통해, 한국적 운명관에 대한 순응과 그에 따른 인간의 구원을 형상화한 인생파적[72] 내용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참고 문헌>>

이남호(1995), 『문학앨범 김동리』, 웅진출판주식회사.
신정숙(2017), 『김동리, 근대에 길을 묻다』, 예옥.
송성헌(2002), 『김동리 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우리문학연구, 15호, pp.307-336.
유기룡(1999), 『김동리 문학작품에 나타난 원형적 상징의 연구』, 어문논총, 33호, pp.211-228.

71) 한곳에 붙어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역마살이 끼었다고 한다.
72) 1930년대 한국 사단의 한 유파로, 예술지상주의적이며 감각주의적인 경향에 반대하고 인간의 정신과 생명적 요소를 중시했다.

역사를 넘어 한국인의 정신까지 담아낸『토지』

-『토지』의 줄거리 소개 및 시대적 배경

국어국문학과 20181034 민초이

『토지』는 소설가 박경리가 1969년 집필하기 시작해 1994년 8월 총 5부 16권으로 완간한 역사소설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경장 직후인 1897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를 배경으로, 한 가문의 몰락에서 재기에 이르는 과정을 경남 하동군 평사리와 용정, 진주와 서울, 일본, 만주 등 동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작품 속에는 동학농민전쟁, 을사보호조약, 청일전쟁, 간도협약, 만주사변 등 우리 근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등장한다.

『토지』의 대략적 줄거리는 제1부는 1897년부터 합방 직전까지의 십여 년 동안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 마을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지주 최참판 댁과 마을 농민들의 생활을 연대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등장인물이 거의 오십 명에 가까우며 사건들 역시 어느 단일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대강의 스토리를 소개하기도 어렵다.

제2부는 1부의 끝부분으로부터 시간적으로 약 3~4년을 건너뛴 1911년부터 약 6~7년간의 간도 생활을 서술하고 있다. 평사리로부터 간도의 용정으로 옮겨간 최서희, 김길상, 이용, 김영팔, 월선이, 임이네, 판술네, 김훈장, 이상현 등의 간도생활과 이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독립운동에 가담한 이동진과, 김평산의 아들로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김두수 등의 생활이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주된 서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3부는 최서희 일행이 간도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 삼일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가을부터 몇 년 동안의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그 서술의 대상이 네 가지 부류의 인물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평사리와 진주를 중심 무대로 삼고 있는 옛날(1부) 주요 인물들의 후일담이고, 둘째는 이상현과 교우관계에 있는 서울을 중심무대로 삼고 있는 지식인들의 삶이고, 셋째는 김환과 혜관스님을 주축으로 하여 지리산 이남에서 활약하고 있는 독립 운동가들의 생활이며, 넷째는 길상이와 공노인의 활동 무대인 간도와 만주의 망명객들의 생활이다.

제4부는 원산의 운수 노동자, 석유 공장 노동자 등 천사백여 명이 참여한 대파업과, 근 이백 개의 학교, 오만 사천여 학생이 동맹 휴학하여 시위를 벌인 광주학생운동이 일단은 진정되었지만, 그 후유증이 미처 정리되지 못한 1930년부터 시작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

제5부는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앞부분의 이야기를 수습하고 갈무리해야 할 부담을 안고 출발한다. 따라서 5부에 대한 평가는 3, 4부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토지』라는 작품은 최 씨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십 명의 가족들이 움직이고 스스로 그 능동적 삶을 찾아 애쓴다. 존재의 떨림, 생명의 떨림은 모두 자기의 집짓기를 위한 몸부림이고 민족의 집짓기, 우주의 집짓기를 향한 빛 찾기이다. 이 이야기 떨기들은 우리를 크나큰 감동에 젖게 한다. 누구도 이 작품을 읽지 않고 일본을 말하거나 생명을 말하기 어렵다. 한국인의 가장 격조 높은 정신의 맑기와 그 처연함을 이 작품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영주(2006),『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7』, 휴머니스트.
박경리(2012),『토지』, 마로니에북스.

『토지』의 강인한 여성들

-『토지』의 문학사적 의의

인문학부 20191047 박세현

박경리는 개인의 삶 자체를 시대와 문학으로 표현해내며 근현대의 여성작가로 활동하였다. 또한, 다른 여성작가들이 문학 활동을 중단한 와중에도 박경리는 자신의 체험을 더 널리 알려 작가적 능력을 높였다. 즉,『토지』는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을 풀어나가며 근현대사 속에서 겪은 시련과 고난들을 나타내는 역사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지』는 여성이 가족을 이끄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유교질서의 붕괴와 국권상실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배경 속에서도 모계 중심의 가족사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한 자존심과 실행력을 가진 여성가장의 모습을 한 가문의 대표로 내세우면서 여성 주도형의 역사를 기록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토지』의 1.2부의 주요인물인 최서희는 친일 행위 속에서도 조선의 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식민지들이 자괴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또한 최서희는 겁탈 당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도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가치보다도 생명이 우위에 있다는 생명 사상이 내포된 모습을 보여준다. 즉, 최서희는 조선 문화의 힘을 마음속에 품으며 그것을 통해 일본인들의 양면성을 들어내게 만든 인물이었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도 생명사상을 기초해 모성애를 실현한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토지』1, 2부에서 최서희가 가문 유지를 위한 행동은 봉건 가부장제에서 비롯한 잔여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토지』는 많은 역사적 이야기 갈래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소설과 차별화 된 모습을 보이고 그 중에는 양반 여성뿐만 아니라 농민 여성, 식인 여성과 같은 다양한 여성의 서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의미를 가진다.

또한『토지』의 3.4.5부의 임명희, 유인실과 같은 대표적인 여성 인물은 전근대적 생활 방식과 근대적 가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대표적으로 유인실을 알아보면 일본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선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하지만 유인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산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저항적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즉,『토지』는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여성인물들이 주체적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면밀히 보여준다.

종합적으로『토지』는 근현대사를 직접 체험한 작가가 오랜 시간동안 책을 집필하며 암울한 사회상 속에서 고통과 시련을 겪는 민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모습에 대항하는 주체적인 여성인물을 등장시킨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박경리는 여성인물의 시각을 통해 전후 현실의 타락과 부패, 가족공동체의 파괴문제를 그려내며 근대적 시기 속에 놓아져있는 여성들의 삶을 포착한다. 즉,『토지』는 생명사상을 내재한 모성 성을 보여주며 부정적인 당시의 시대상을 주체적으로 타파하려는 여성의 모습과 자신의 정체성을 갈구해내는 여러 가지 여성 서사를 등장시켰다는 문학적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박상민(2015),『토지 연구의 통시적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백지연(1998),『박경리의 토지』, 역사비평.
이미화(2008),『박경리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이재복(2013),『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숭고미』, 우리말글.

작품과 수상으로 알아본 박경리

- 박경리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61081 임무혁

박경리는 1926년 10월 28일 경남 충무시 명정리에서 박수영씨 장녀로 출생하였다. 본명은 박금이이다. 1945년 진주고등여학교를 졸업하였다. 1946년 김행도씨와 결혼하였고 딸 김영주를 출생했다. 1950년 남편과 사별한 뒤 창작에 전념하였다. [73] 1955년 김동리의 추천으로 단편 <계산>등이 『현대문학』에 실리면서 등단했다. 1957년 단편 <불신시대>로 제3회 『현대문학』 '신인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1959년 <표류도>로 제3회 '내성 문학상'을 수상했다. 1962년<김약국의 딸들>, 1964년<파시>, <시장과전장>등의 장편을 발표했다. <시장과 전장>으로 제2회 '한국 여류 문학상'을 수상했다.[74]

<土地>는 1969년부터 『현대문학』에 연재를 시작하여 1972년 9월까지 1부를 집필했다. 1972년 <土地>1부로 제7회 '월탄문학상'을 수상했다. <土地>2부는 같은 해 10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문학사상』에, 3부는 1978년부터 『주부생활』에, 4부는 1983년부터 『정경문화』와 『월간경향』에 각각 연재했다. 1984년에 한국일보 창간 30주년 기념 '한국 전후문학 30년의 최대 문제작' 선정에서 선우휘의<불꽃>, 황석영의 <장길산>과 함께 <土地>가 선정되었다. 마지막 5부는 1992년부터 『문화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1994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하소설 <土地>의 전작이 완결되었다. 25년에 걸쳐 원고지 4만 장 분량으로 탈고된 것이다. 한말로부터 식민지시대를 꿰뚫으며 민족사의 변전을 그리고 있는 대하소설 <土地>는 탈고 전에 이미 한국문학의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박경리는 그해 8월 27일 이화여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 10월 6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올해의 여성상' 수상. 12월 3일. 유네스코 서울협의회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 1996년 3월 22일 제6회 '호암상 예술상' 수상. 4월 26일 칠레 정부로부터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문학 기념 메달'을 수여하며 한국문학사에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거봉으로 우뚝 섰다.[75]

---

73) 이승윤(1996), 『박경리 연구 자료 : 박경리 연보』, 현대문학의 연구 6, p.499.
74) 박경리(2002), 『土地』, 나남출판.
75) 이승윤(1996). 위의 논문, pp.501-502.

한반도의 발자취 토지를 따라서

'토지' 속 공간들의 의미

인문학부 20191100 조휘현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토지』의 무대로 유명한 악양 평사리는 섬진강이 주는 혜택을 한 몸에 받은 땅이다. 평사리가 위치한 지명인 악양은 중국의 악양과 닮았다하여 지어진 이름이여 중국에 있는 지명을 따와서 평사리 강변 모래밭을 금당이라 하고 모래밭 안에 있는 호수를 동정호라 했다. 악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 중에 소상팔경이 있으며 평사리에 위치한 동정호와 악양의 소상팔경은 이곳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가득 담긴 풍경을 자아낸다. 또한, 형제봉 중턱 300m에 위치한 사적 제151호 고소성은 신라시대 축성한 것으로 섬진강과 동정호를 발아래 두고 천년의 발자취를 말해준다.

『토지』는 평사리의 최참판 가를 중심으로 농민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서사를 시작한다. 이후 사회신분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참판 가와 평사리 마을 사람들의 관계는 여전히 종속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체득되어 정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강제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최치수가 살해당하고 윤씨 부인과 그의 심복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후에 급속도로 변하는데 최참판 가의 유일한 핏줄인 최서희는 더이상 권력으로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 조준구에 맞서는 운명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최서희와 평사리 마을 사람 일행은 간도 용정으로 함께 도피해 가는데, 그들이 평사리를 떠나면서 조준구의 세력은 강화되고 남아 있는 평사리 마을 사람들은 조준구와의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최참판 가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관습적 친분 관계는 친일파 조준구가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평사리는 농촌 공동체로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지속되는 공간이기는 하나 지주가 최참판 가에서 조준구로 다시 최참판 가의 서희로 바뀌면서 관계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서희와 그의 일행이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한 용정은 평사리와는 전혀 다른 사회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적응과 모색의 공간이 된다. 서희 일행의 이주 동기는 일제를 등에 업은 조준구와의 대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정에서 서희는 공노인의 도움을 받아 부를 축적해나가고, 길상과 결혼하여 최참판 가의 재건을 도모한다. 또한 조선땅에서 헤어져야만 했던 인물들이 조우하고 화해하게 되는 공간이자 평사리에서는 이루지 못하였을 인연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공간이 용정이다.

지리산은 공동체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평사리와 유사성을 지닌다. 평사리가 농촌 공동체라면 지리산은 저항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가난, 핍박, 차별 등 온갖 억압으로부터 풀려나기를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공동의 선을 회복해가는 공간이라는 점 또한 저항적이다.[76)]

76) 최유찬(2004),『토지의 문화지형학』, 솔, pp.177-210.

무진, 그리고 순천

-『무진기행』 줄거리, 무진 속 순천과 안개가 갖는 의미

국어국문학과 20181072 이연호

아내의 권유로 '나'는 고향 무진으로 떠난다. 젊고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을 했고, 얼마 후 제약회사 전무가 될 서른세 살의 나는 어머니의 묘가 있고 더 젊은 날의 추억이 있는 무진으로 간다. 무진에는 항상 안개가 잔뜩 끼어 있었다. 과거에도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면 무진에 오곤 했었다. 그러나 늘 어두운 골방 속에서의 불면과 그리고 초조함이 있었을 뿐이다.

무진에 온 날 밤, 중학교 교사로 있는 후배 '박'을 만난다. 그와 함께 지금은 그곳 세무서장이 된 중학교 동창 '조'를 만난다. 거기서 '하인숙'이라는 음악 선생을 소개받는다. 대학 졸업 음악회 때 '나비 부인'의 아리아 '어떤 개인 날'을 불렀다는 그녀는 술자리에서 촌스럽고 처량하게 유행가를 부르고 둘만이 함께 있을 때, 무진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나에게 간청한다, 나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한다. 이튿날,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방죽 밑에서 술집 여자의 시체를 본다. 바다로 뻗은 방죽, 그곳은 내가 과거에 폐병으로 요양했던 집이었고 거기서 하인숙과 하룻밤을 보낸다.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끝내 말하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아내로부터 온 급한 전화가 과거의 의식에 빠져 있던 나를 일깨운다. 하인숙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쓰지만 곧 찢어 버린다. 이제는 영원히 기억의 저편으로 무진을 묻어두기로 결심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진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끝난다.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김승옥은, 1945년에 귀국하였고 이듬해에 순천으로 이사해 그곳에서 자랐다. 김승옥이 성장한 곳인 이 순천은 그가 쓴 소설인『무진기행』과 연관이 깊다. 먼저 이 책은 김승옥이 대학 졸업에 실패하고 나서, 잠시 휴학하며 고향인 순천으로 내려가 "왜 나는 서울에서 실패하면 꼭 고향을 찾을까"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쓴 작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작품과 순천은 왜 연관이 깊은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책의 주요 장소가 되는 무진, 그곳이 순천을 배경으로 하는 가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순천에 있는 순천만은 자욱한 아침의 안개와 무성한 갈대밭으로 유명한 곳이다. 김승옥은 그중 순천의 안개를 소재로 삼아 무진기행의 작품 속에 녹여놓았다. 지금부터 이 안개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진기행』에서의 무진(霧津)은 그 이름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곳이다. 이 무진의 안개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그 자체만이 아니다. 곧 제약회사의 전무가 될 '나'가 피로와 부담을 떨치고자 무진으로 와 잠시 휴식을 가지게 되는 부분에서부터 안개는 서울과 무진을 분리시키는 역할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나'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불연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외부세계와 내부세계를 분리·차단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에게 무진에서의 현실은 그 외부에서 접하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현실'이 된다.[77] 이 속에서 '나'는 무진의 안개 속으로 숨어들어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유를 획득한다. *"항상 골방에 처박혀 반쯤 잠든 상태로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무진이 아니었다면 떠올리지 않았을 엉뚱한 생각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거침없이"* [78]해내는 것과 같은

77) 곽상순(2008),『김승옥의「무진기행」연구 -'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구 국제어문학연구회), pp.260-261.

78) 김승옥(2007),『무진기행』, 민음사, p.12.

자유를 말이다. 그러므로 이 무진에서 얻어가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온전한 휴식이 아닌, 불면과 초조함이더라도 무진은 안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특별한 곳이 된다. 이것이 '나'에게 '무진'이 '안개'로 기억되는 이유인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순천과 무진 사이에는 단순히 '안개'라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 안개는 분명 순천과 무진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이며, 또한 그것이 작품에 미치는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에『무진기행』과 순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승옥(2007),『무진기행』, 민음사.
김승옥(1977),『뜬 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곽상순(2008),「김승옥의「무진기행」연구 -'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구 국제어문학연구회), pp.255-280.

김승옥의 풍부한 감수성

-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41115 김태영

한국문학사에서 근대적 주체에 대한 자각과 자본주의적 일상성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감수성과 만나는 시기가 바로 1960년대이며, 그 시작에 김승옥의 문학이 있다.

김승옥 소설의 미적 특성 및 주체적 특성을 감수성의 글쓰기, 자아와 일상성의 탐구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감수성의 출발점은 '언어의 자각'에 있다. '언어실험실'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산문시대』 동인들의 언어의식은 김승옥의 작품으로 현실화됨으로써 문학사적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감수성의 글쓰기는 감각적 문체에 머물지 않고 감각적 사고를 하는 인물 설정으로 이어진다. 감각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자 작품의 창작원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무진기행』에서 '안개'라는 상징은 절망과 허무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이 작가의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김승옥의 소설은 '자아의 욕망과 일상의 욕망과의 대립구조'로 읽을 수 있다. 본래적 자아를 찾기 위한 욕망과 일상에 의해 주어진 욕망과의 이러한 대립은 다른 말로 하면 '무진의 욕망'과 '서울의 욕망'의 대립으로 바꿀 수 있다. 이는 상반된 욕망을 가진 인물들이 서사구조 내에 세 일으키는 갈등이 아니라, 한 인물의 내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욕망이 일으키는 갈등이다. 그런데 이 두 욕망은 어느 한편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한 편을 버리는 것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일상을 벗어난 자아를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으며,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면 일상에 그대로 함몰되어 존재의 의미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승옥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두 가지 욕망의 어느 쪽도 성취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인물들이다. 일상에서의 자아는 자신의 욕망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주어진 욕망을 쫓아가기에 급급하다. 자본주의적 구조는 자체의 존속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산출해내므로 이러한 욕망 추구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승옥의 감수성은 언어의 자각과 실험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자아의 발견과 일상성에 대한 내적 경험을 섬세한 인물 심리 분석과 탁월한 이미지 구사로 구체화하였다. 김승옥의 작품세계는 자아 성장을 위한 통과 제의적 과정을 세밀히 묘사하고, 1960년대 서울에서의 일상성의 경험과 자본주의적 일상성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현대 소설의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였다는 데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명석(2004),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김승옥의 소설 속에서

- 김승옥의 작품세계

인문학부 20191078 이혜미

김승옥의 초기 소설은 이분법적으로 분할된 공간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분법으로 보이는 그 공간들은 서로 거울 이미지이자 반영물로 기능한다. 「무진기행」의 '서울'과 '무진'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유사-대립물이라 부를 수 있다. 김승옥의 소설은 이런 유사-대립물들의 적층과 반복으로 짜여 있다.

그런데 김승옥의 소설들은 '누이, 아내,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대립을 부수고 서사에 시간성을 도입한다. 「무진기행」은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에서 시작해 '무진에 도착했습니다'로 끝나는 귀향 소설이 아니다. 오히려 "무진 Mujin 10Km"로 시작해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로 끝나는 '귀경'소설이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 유토피아 소설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세계를 인정하는 역유토피아 소설인 것이다. 무진이 어머니의 자궁처럼 긍정적인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작은' 서울, '또 다른' 서울, 서울의 '주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흔히 오해되듯이 서울과 무진은 도시와 시골로서 서로 대립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유사한 의미를 제공하는 공간에 더 가깝다. 무진과 하인숙은 '나'의 그림자이자 무의식이다. 그리고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 아니라 자아와 또 다른 자아의 대립으로 그 중심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이 소설의 뚜렷한 대립을 보여주는 것은 '편지'와 '전보'의 대립이다. 편지는 하인숙에 대한 '나'의 순정과 책임이 조화롭게 결합하는 비도시적인 세계를 의미한다. 반면 전보는 아내에 대한 '나'의 의무와 하인숙에 대한 배신이 수치스럽게 결합하는 도시적인 세계를 의미한다.

나는 이모가 나를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떴다, 늦은 아침이었다. 이모는 전보 한 통을 내게 건네주었다. 엎드려 누운 채 나는 전보를 펴 보았다. "27일회의참석필요, 급상경바람 영" '27일'은 모레였고 '영'은 아내였다. 나는 아프도록 쑤시는 이마를 베개에 대었다. 나는 내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내의 전보가 무진에 와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사고를 내게 점점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 주었다.[79]

김승옥의 소설은 '자기세계'를 기준으로 하여 세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시기에는 '자기세계'를 추구하는 강한 욕망을 지닌 인물들이 되풀이하여 등장한다. 「생명연습」의 인물들은 '성'에 눈뜨면서 성장한다. 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모방함으로써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고 그것으로 '자기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둘째시기에는 '자기세계'의 한계를 인식한 인물들이고 독하게 방황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나간다 「무진기행」에서는' 돈'을 쫓아가는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그러한 현실세계로 복귀하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시기에는 '자기세계'가 해체되면서 고도성장의 사회현상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소시민의 삶이 그려지고 있다. 「서울의 달빛 0장」에서는 '돈'을 위해서 라면 자신의 '성'조차도 과감히 내던지는 인물들의 생활상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속물 근성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

79) 김승옥(2007), 『무진기행』, 민음사, p.40.

김승옥 소설의 인물들은 견고한 자기 기준에 의해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보다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혹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욕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후기의 작품들처럼 '자기세계'가 해체되는 국면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김승옥의 소설은 1960년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현실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성숙한 시민 의식에 도달하지 못한 채 소시민적 삶을 그리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위악적이고 자기기만적인 '자기세계'가 출구를 찾지 못해 타락한 현실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김승옥의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김승옥은 당대의 한국적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실존적 질문을 자신의 불안과 절망 좌절과 고뇌를 통하여 독자에게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 문헌>>

양윤의(2014),「김승옥 소설의 주체 연구 :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3집』, 18권 2호. pp.233-256.
김미현(2007),「서울의 우울-김승옥론」,『무진기행』, 민음사.
이봉희(2007),「김승옥 소설 연구: 인물의 '자기세계'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무진기행』, 민음사.

Ⅲ. 유적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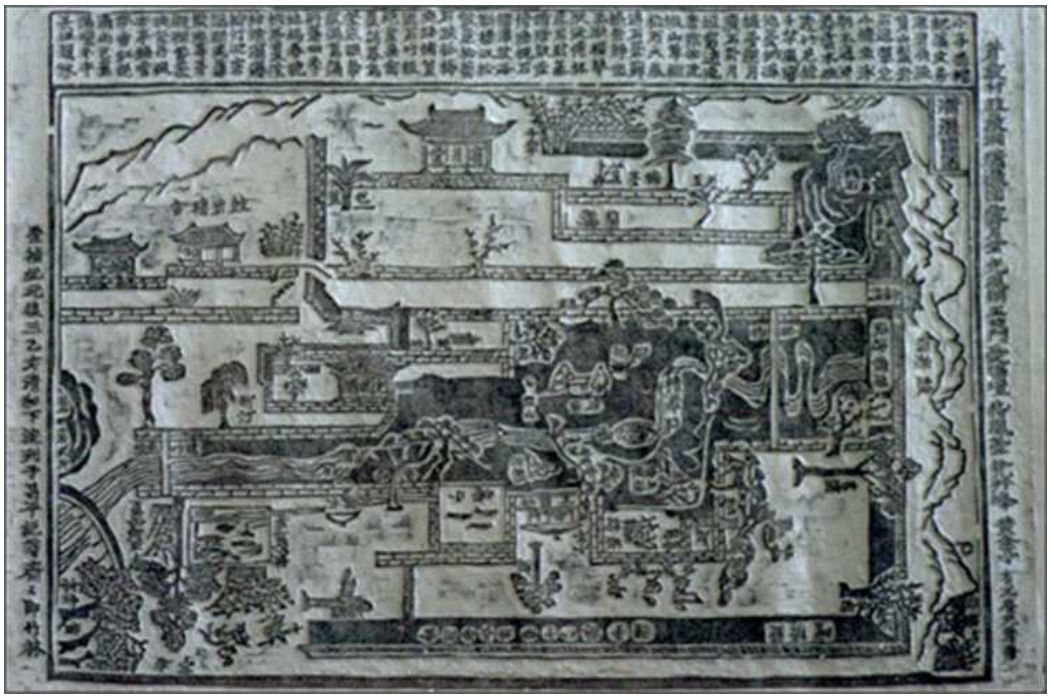
소쇄원

소쇄원을 조영한 이는 양산보(梁山甫, 1503-57)였다. 양산보의 본관은 제주, 자는 언진(彦鎭)이라 했다. 양산보가 낙향 한 후 소쇄원을 조영한 시기는 확실하진 않지만 정동오 교수는 30대에 초가정자를 짓기 시작한 후 40세 때 송순의 도움으로 소쇄원을 완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림의 이름을 소쇄원이라 하고 사랑채와 서재가 붙은 집을 '제월당(霽月堂)', 계곡 가까이 세운 누정을 '광풍각(光風閣)'이라고 한 것은, 송나라 때 명필인 황정견이 주무숙의 인물됨을 "가슴에 품은 뜻의 맑고 맑음이 마치 비 갠 뒤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과도 같고 밝은 날의 달빛과도 같네"라고 한 데에서 따온 것이다.

세월이 흘러 소쇄원의 집들은 낡고 헐어 무너지고 게다가 전란 속에 피해를 입어 옛 모습을 잃었지만 1755년에 이 원림의 구조와 건물배치를 자세히 그린 「소쇄원도」를 목판화로 남겨두어 우리는 그 원 모습을 남김없이 복원해볼 수 있게 되었다.

소쇄원은 1975년, 전라남도 지정문화재가 되었고, 1983년에 사적 304호로 지정되었다.



<소쇄원도>

백련사

백련사에 남아있는 조종저(趙宗著, 1631~90)찬의 '백련사사적비'비문의 기록에 의하면 839년 구산선문 중 하나인 충남 보령 성주사문을 개창했던 무염(無染)선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신라 말기에 지방호족들이 큰스님을 초치하여 산간벽지에도 절을 세우던 때에 세워진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행호(行乎)스님이 나타나 효령대군이라는 왕손의 후원으로 중창을 보게 된다. 지금 백련사 종루가 세워진 뒤쪽 넓은 터에 있는 '백련사사적비'는 이 때 세워진 것이다.

행호스님 이후 백련사는 사맥을 유지하였으나 1760년 화재로 수백 칸을 다 태우고 2년에 걸친 역사 끝에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 만경루와 대웅보전에 당대의 명필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의 글씨가 걸리고 대웅전에는 후불탱화와 삼장탱화가 봉안되었다.

<백련사 대웅전>

《참고문헌》
유홍준(2011), 『나의 문화유산답사기1 - 남도답사 일번지』, 창비.

메모